Weekly 공감

2010.10.13 No.80
gonggam.korea.kr

G20 SEOUL SUMMIT 2010



2010 KOREAN GRAND PRIX

WWW.KOREANGP.KR

이제 F1 이다!

전 세계 6억명이 즐기는 **질주본능!!**
이제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F1 WEEK(10. 18 ~ 10. 24)에는 목포 평화광장 등 시내일원에서
카퍼레이드(엔틱카.슈퍼카), 인디밴드 공연, DJ클럽 파티, 레이싱 퀸 선발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2010.**10.22~10.24** /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티켓 구입처 • 콜센터 : 1588-3448

인터파크(www.interpark.com),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신한은행, 광주은행

2010 FORMULA 1 KOREAN GRAND PRIX

‘코리아 프리미엄’ G20 정상회의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 서울 G20 정상회의 홍보대사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제가 전지훈련을 했던 캐나다 토론토도 지난 6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돼 들떠 있었는데, 바로 다음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어 뿌듯하기만 합니다.

‘선진국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G20 정상회의는 서울 G20 정상회의 홍보대사인 저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열한 살 때부터 세계 각지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했는데,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간 건 2002년 슬로베니아 트리글라브 대회 때였는데, 당시만 해도 대회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나 현지 택시기사분들은 저를 보면 “중국인이니, 일본인이니?”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장 먼저 “한국인이냐”고 묻습니다. “맞다”고 대답하면 꼭 “쎄울(Seoul)에서 왔느냐”고 묻고는 “캄사합니다, 안녕하쎄요”라며 우리나라 말로 인사를 합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는 저는 공항에서도 국력을 실감한답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공항에서 제일 처음 본 광고는 ‘삼성’이었습니다. 최근 2010 세계선수권대회에 다녀오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환승을 했는데, 그 큰 공항을 가득 메운 것도 현대 · 기아자동차와 삼성, LG의 광고들이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공항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가 저 브랜드들의 광고 모델이에요”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지겠죠. 세계를 돌며 피겨스케이팅 연기를 하는 저에게 그 이상 큰 힘은 없을 겁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가장 멋진 연기로 ‘코리아(Korea)’를 드높일게요.



저 김연아가 바라는 ‘G20’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협의체의 중심이 되어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 서울 G20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G

Weekly
2010.10.13
No.80(통권 181호)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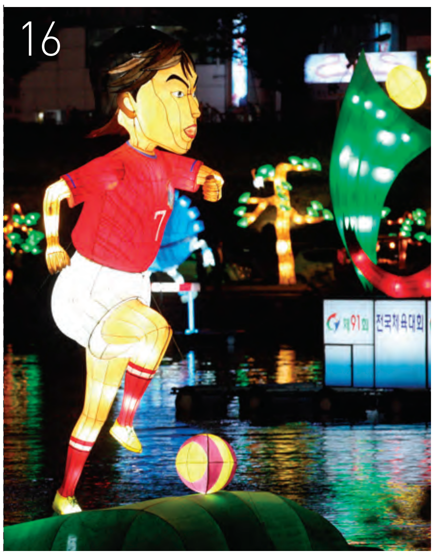


표 지 이 야 기

자신의 영화 인생이 담긴
명보극장 등 평생 모은 5백억원대
재산을 후배 양성을 위해
내놓은 원로배우 신영균 씨.
사진 · 조영철 기자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0.1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서울 G20 정상회의 D-30

대한민국, 세계 중심에 서다

11월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의 심장은 기대감에 두근거립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병합된 지 1백 년을 맞은 올해, 만국평화회의에 간 이준 열사가 분사(憤死)한 지 1백여 년이 지난 지금, 지구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G20 정상회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도약한 우리나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이끌고 대한민국 외교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달, 최상의 G20 정상회의를 위한 최선의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44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79호(10월 6일자) 기획특집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방대 출신·장애인 배려하는 공정사회 되길

"그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했으면 이런 이슈가 등장하는지 뒤늦었지만 반갑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를 인식하고 소수자와 약자, 지방대 출신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우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이를 해소해나가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봅니다." _우상렬

"'상생 파트너로 동반성장 이끈다'를 읽고 여태껏 중소기업이 당한 설움과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비록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이 힘을 가졌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생의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하리라 봅니다." _우향화

"여행도 복지… 선진국에 다가선 느낌"

"여행 하면 해외로 나가야 맛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생 가족여행 한 번 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행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에게 여행 기회를 준다니 참 좋네요. 여행도 복지의 한 분야로 여겨진다니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다가선 느낌입니다." _전인선

79호 '스포츠 / 금의환향 U-17 여자월드컵 한국대표팀'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낸 의견입니다.

"U-20 여자월드컵 3위에 이어 U-17 여자월드컵 우승이라니…. 축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믿기지 않는 쾌거입니다.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떠오르는군요. 그때는 축구를 전문적으로 한 선수가 없어 각 종목에서 부랴부랴 선수를 선발해 아시안게임에 나갔었죠. 일본에 엄청난 점수 차로 패한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20년, 한국 여자축구는 초라한 시작을 추억으로 남기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여성은 강하네요. 농구, 하키, 배구, 핸드볼 등에 이어 축구까지 세계를 제패한 한국 여전사들의 '진가'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_윤종현

79호 '화제 / 희망의 불씨 찾아 신용회복위원회는 달린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낸 의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임직원들이 10월 말에 춘천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에서 회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서민들에게 한 바가지 마중물을 주듯 소액금융대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랍니다. 그들이 이를 악물고 뛰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중물 만들기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기부 달리기 파이팅!" _김수진


자율·공정·책임이 함께하는 '공정한 사회'


지~지~지~지~ 한국축구 '소녀시대'

알립니다

10·27법난 피해 접수합니다



올해는 불교계의 아픔으로 불리는 10·27법난이 발생한 지 30주년 되는 해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 삼아 불법적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련자 1백53명을 강제 연행해 수사한 사건으로 국가권력 남용사건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2008년 12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 기간 | 2011년 12월 31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 대상 | 10·27법난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 또는 10·27법난으로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접수 내용 |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신청 방법 |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접수처 |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02-748-5555, 1027 beopnan.go.kr

5달러로 최대 수익 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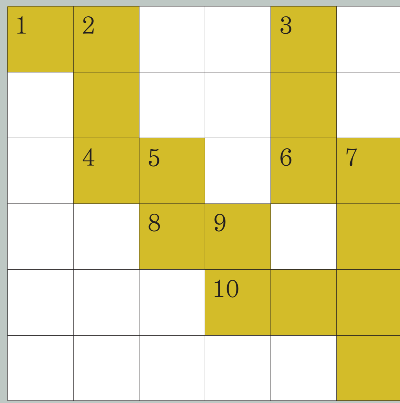
미국 스탠퍼드대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5달러 프로젝트'가 국내에서 열린다. '2시간 동안 5달러로 최대 수익을 내는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라'는 과제로 화제가 된 이 프로젝트는 이번 '으라차차차 힘내라 청년아! 5달러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내용 | 1차 : 5달러가 든 봉투 개봉 후 2주 이내 최대한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 2차 : 아이디어 실행 결과 오프라인 경쟁 프레젠테이션 대회(1차 선발팀에 한함)
참가 대상 | 전국 대학(원)생 및 취업 준비생. 팀 구성 응모 5인 이하
응모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양식 내려받은 후 e메일 제출(ifonly20@nate.com)
수상자 발표 | 11월 22일 고용노동부 및 웅진씽크빅 홈페이지 공지 예정.

고용노동부 ☎ 02-3670-1013 moel.go.kr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0월 20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막힌 데가 없이 통함.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음. "국민 화합을 위해서 계층 간 OO이 매우 중요하다."
4. 상을 줌. 또는 시를 짓기 위한 착상이나 구상,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
6. 자리를 잡은 곳. 집터나 살림의 근거지가 되는 곳. 일의 토대.
8.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 등 탈것을 타는 손님.
10. 던져서 숫자를 보는 놀이도구. 정육면체에 하나부터 여섯까지의 점을 새겨넣었죠.

세 로

2. 두 개 이상의 도시가 합쳐져 하나의 도시가 되는 것. 경남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OO창원O.
3. '지저귀다'의 뜻을 지닌 '신속한 소통도구'. 쉽게 말하면 휴대전화로 블로그를 하면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하는 것을 말하죠.
5.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감. 주가OO. OO기류.
7. 재앙과 불행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되는 것. "지금의 어려움을 OOOO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9. 조선시대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물건을 맡아 팔거나 흥정을 붙여주는 일을 하던 상인. 또는 그런 집.

〈Weekly 공감〉 78호(9월 22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3** 의경 **4** 성가 **6** 지리 **8** 모나리자 **10** 레슬링
세로 **1** 농경지 **2** 귀성 **5** 가시리 **7** 리모델링 **9** 자랑

〈Weekly 공감〉 78호 '공감 퍼즐' 당첨자

권혁목·인천 서구 승학로
김미선·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박천호·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9리
신재임·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조학철·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스타 홍보대사 초대석

“월드스타 꿈, 법제처와 함께합니다”

정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홍보대사

안녕하세요. 현재 케이블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롤러코스터–남녀탐구생활’의 여주인공 정가은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한류 열풍으로 우리 문화가 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 중심축인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위상도 함께 올라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 지망생이 늘어나면서 사탕발림으로 속여 청소년들의 소중한 꿈을 무참히 짓밟는 ‘가짜 매니저’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데뷔한 인기 연예인들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방송을 하다 보면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이돌 가수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기와 열정만으로는 연예계 데뷔 전후에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지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어디에다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러스트 · 문지혜

제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들 앞에 닥칠 수 있는 수많은 난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수 지망생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음반을 취입해 가수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피해 사례도 곁들여 풀어놓았으니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과 부모님들은 꼭 참고하셔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중문화는 우리 사회 전반을 투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대중문화를 한국의 국가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키워줘야 합니다. 저도 우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법을 더 쉽고 가깝게 느끼고, 사회적 약자도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조성하는 데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밝은 미래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을 대한민국 청소년들, 모두 모두 파이팅!

글 · 정가은(탤런트)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강창규 대전 중구 목동

1. FIFA 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소녀전사들의 모습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비인기종목의 설움과 부족한 인프라를 딛고 따낸 것이라 더욱 값지게 보입니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2. 기획특집 ‘공정한 사회, 비전 보인다’를 읽고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에 의거한 공정사회 구현의 비전과 정부의 의지를 잘 보았습니다. 공직자들의 솔선수범하고 진솔한 모습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것이 통합과 선진사회를 구축하는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석 서울 노원구 상계9동

1. ‘인플루엔자 주의보…백신접종 하셨나요’ 기사를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 장소 등이 잘 나와 있어 유익한 정보가 됐습니다.

2. 요즘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한 사회’라는 용어를 들으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도 ‘공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3. 날씨가 쌀쌀해지니 감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13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서울 G20 정상회의 D–30’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함께 만들어요! 대한민국세미래 稅美來

NTS 국세청
www.nts.go.kr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 126 하세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세법상담에서 연말정산까지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상담시간

월~금 오전 9:00 ~ 오후 6:00
(탈세신고는 365일 24시간 가능)

세미래 콜센터
126

세미래(稅美來)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ASEM 정상회의서 G20 적극 세일즈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한 회원국의 지원 당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가 10월 5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쳐 참가국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우려 표명 등 성과를 거뒀다.

ASEM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쳐 참가국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우려와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회의 개막 첫날인 10월 4일 ASEM 본회의 지정발언을 통해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및 지배구조를 변화된 세계경제 질서에 부합하게 조정한다는 원칙에 이미 합의했으며, 이를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특히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서 IMF 쿼터·지배구조 조정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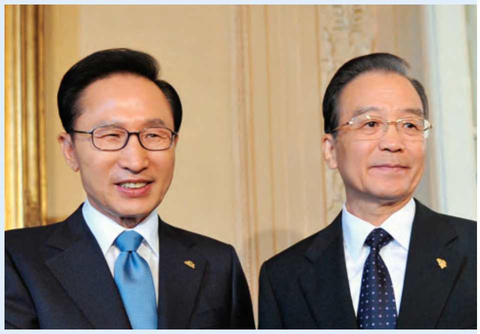
이어 이 대통령은 "더욱 효과적인 세계경제 거버넌스(Governance·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ASEM과 같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ASEM 정상들이 10월 4일 개막 기념촬영을 하기 전 담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ASEM 참석을 계기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왼쪽 사진),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 사진)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역 간 협력체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G20와의 상호보완적 협조관계 등 글로벌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ASEM 정상회의를 통해 ASEM 회원국 간의 협조와 정책공조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ASEM과 G20 간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삶의 질'을 주제로 열린 이번 ASEM 의장성명은 "교착상태에 놓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포괄적이고 균형된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며 기존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다자무역체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의장성명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2010년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천안함 침몰에 따른 인명 손실에 대해 한국 정부에 위로를 표한다"면서 "유사한 추가 공격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사건 '의장성명' 지지

의장성명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며 비핵화를 주장했다. 정상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세계 금융·경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의장성명과 별도로 '브뤼셀 선언'을 채택하고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과 투명성 강화 ▲금융 부문 개혁 ▲개발도상국 경제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브뤼셀 선언은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이해가 갈리는 IMF 쿼터 개혁을 내달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G

글·박경아 기자

李대통령, 中·日 총리와 연속 회담

원자바오 "천안함 관련 한국민 오해"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서울 G20 정상회의 및 최근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지도자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만족을 표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및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국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원 총리는 "중국도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총리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약간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러나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찬성했고,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해 여러 차례 애도의 뜻을 밝혔다. 사건을 일으킨 측에 대한 규탄의 뜻도 여러 차례 천명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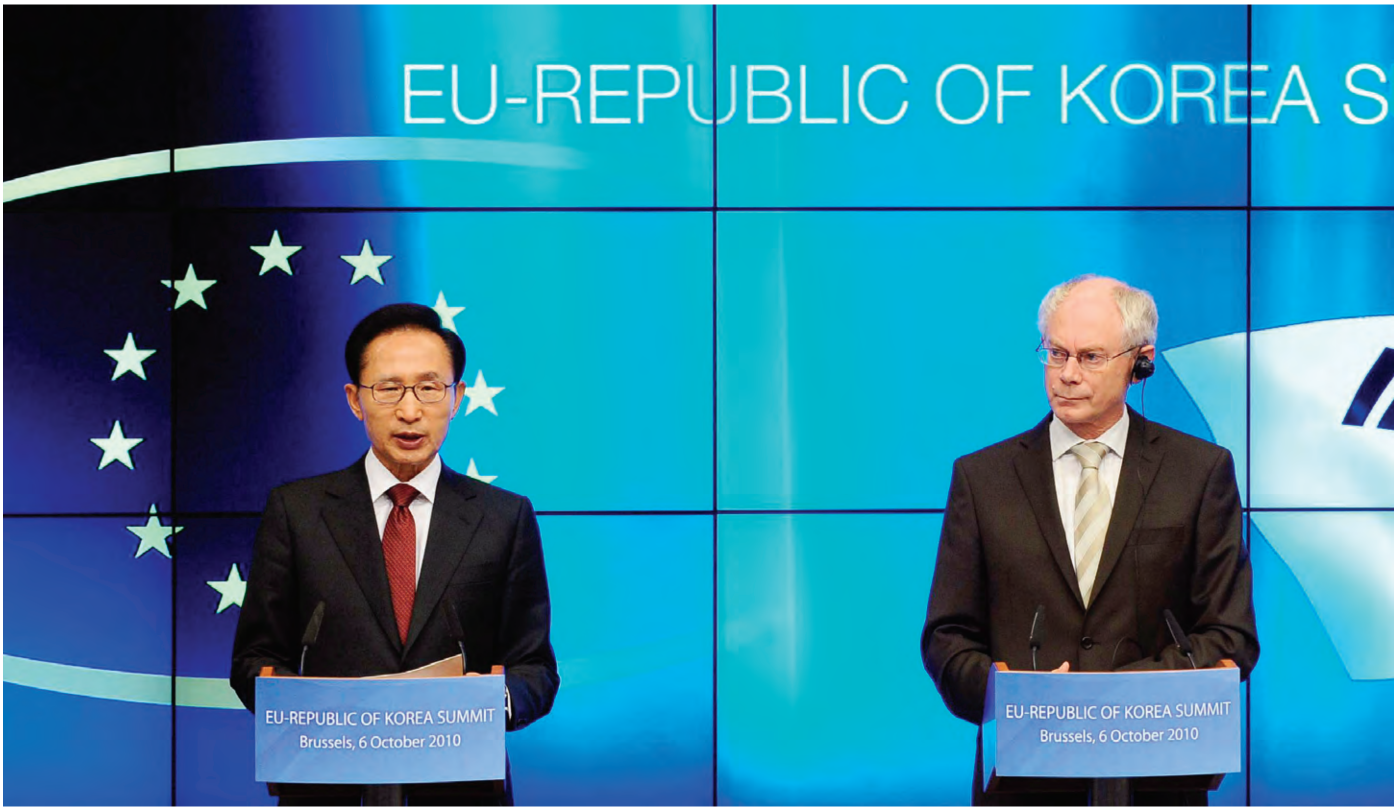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원 총리에게 남북관계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식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0월 4일 오전 ASEM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북한 문제, 국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간 총리는 지난 8월 10일 발표한 한반도 강제병합 관련 사과담화에 대해 "따뜻하게 평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담화에서 밝힌 조선왕실 도서 양도에 대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하고 "동북아를 위시한 국제사회에서 양국이 협력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고, 협력의 필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이어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G20 정상회의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며, 또 그 직후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APEC·에이펙)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도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韓·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FTA 서명은 경제적 동맹 이상의 '가치동맹' 의미

한국과 유럽연합(EU)이 10월 6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하고 양자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한국과 EU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공동의 글로벌 이익을 바탕으로 한 관계 격상 합의와 FTA 서명은 경제적 동맹 이상의 '가치동맹'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10월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지난해 5월 23일 개최된 제4차 한·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헤르만 반 롬푸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제5차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국과 EU는 지금까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EU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과 이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양측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공동의 글로벌 이익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한·EU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했다. 또 지난 5월 한·EU 기본협정 서명에 이어 정상회담 직전 한·EU FTA를 서명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했다.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 위해 협력 공표

정상들은 한·EU FTA를 통해 '무역 자유화가 세계경제 회복에 핵심 요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경제 행위자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한·EU 관계에 중요한 진전임을 공표했다. 더불어 한·EU 기본협정과 관련해 이 협정이 기후변화 및 개



10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체결 서명식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과 반 롬푸이 EU 상임의장, 바호주 집행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DB



동아DB

한·EU FTA 체결 서명식.

발원조와 같은 주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강화된 한·EU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한국과 EU 정상은 한국과 EU 양측이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 도전에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며, 저탄소 경제가 되기 위한 수준 높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 양측 정상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모든 국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이 주최할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공표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국과 EU 양측은 천안함의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7·9 유엔안보리 만장일치 의장성명'에 입장을 같이했다.

정상들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국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기로 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포괄적 해결을 위한 유용한 틀로서 6자회담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으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건설적이고 성실한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한·EU FTA 서명, 3년 5개월 만에 결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달 중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유럽의회는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처리한 후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EU 양측은 이 같은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7월 1일쯤 FTA를 잠정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한·EU FTA는 2007년 5월 체결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또 지난해 7월 극적인 협상 타결로 가서명을 한 지 1년 3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는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보다도 빠른 것으로 한국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EU FTA 서명은 27개 EU 회원국 모두 개별 비토권을 갖고 있어 이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서명으로 27개국 시장이 동시에 열리게 된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한·EU 기본협정 중 경제 부문을 차지하는 것이 FTA 체결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본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FTA로 나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협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철학, 법치, 인권 등에 대한 가치다. 따라서 한·EU 간 합의는 '가치동맹' 의미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경제동맹'"이라고 한·EU 정상회담의 합의와 FTA 서명의 의미를 '경제 이상'이라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국민소득 8조3776억원 증가 일자리 수 25만3000개 증가

"관세철폐 효과 한미 FTA보다 클 것"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게 됐다. 내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6퍼센트 증가하고 자동차와 전기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한·EU FTA 서명으로 27개 EU 회원국 시장이 동시에 열린다. EU 회원국인 이탈리아 토리노 거리를 누비고 있는 삼성전자 광고 차량.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과의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EU 소속 27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다. 또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EU의 대(對)아시아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다.

EU는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변국 및 구식민지 국가들과 30여 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즉 EU 쪽에서 보면 유럽 국가 외의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경제적 기대효과는

EU는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 시장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다.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EU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4천억 달러로, 미국의 지난해 GDP 14조3천억 달러를 뛰어넘는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EU는 중국 다음의 제2시장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EU 총교역은 7백88억 달러, 수출은 4백66억 달러로 미국과의 총교역(6백67억 달러)과 수출(3백77억 달러)을 능가한다.

특히 이번 FTA로 얻는 관세철폐 효과는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기준으로 EU의 평균관세율(5.6퍼센트)은 미국(3.5퍼센트)보다 높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퍼센트), TV 등 영상기기(14퍼센트), 섬유·신발(최고 12~17퍼센트) 등의 관세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 업계에 적지 않는 경쟁력을 안겨주는 것이다.

또한 EU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미국, 중국, 일본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세계적 품질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EU산 제품을 좀 더 싸게 소비할 수 있으며, 선택의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제조업계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EU산 부품 및 소재 수입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최대 5.6퍼센트(연간 8조3천7백76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또 교역 증가로 인해 연간 3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개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최대 25만3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EU시장 한국 상품 경쟁력 높아져

FTA 협정에 따르면 한·EU 양측 모두 공산품(임산물 포함)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되, EU 측은 5년 내에 모두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7년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했다.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1천5백시시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3년 내, 소형은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대EU 전체 공산품 수출액 중 18.5퍼센트를 차지하며, 특히 중·대형 자동차는 자동차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철폐로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수출 시 10퍼센트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양허 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과 함께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했다.

물론 한·EU FTA로 EU 회원국들도 관세 철폐로 우리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국내 산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

FTA로 전 세계 44개국과 네트워크

우리나라는 이번 EU와의 FTA 공식 서명으로 전 세계 44개국과 FTA를 맺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FTA 허브 국가로 부상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년),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 4개국, 2006년), 아세안(10개국, 2007년) 등 모두 16개국과 FTA를 실시 중이며, 이번에 서명한 EU 27개국과 2007년 서명한 미국 등과는 협상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또 페루와는 지난 8월 협상 타결에 합의했고 호주, 터키, 콜롬비아와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다. 캐나다, 멕시코 등 9개국과는 협상 진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 FTA 협상 재개, 중국과의 FTA 협상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한·EU FTA가 내년 7월 발효되면 우리나라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이 25퍼센트에 달하고 미국, 페루, 터키, 호주, 콜롬비아 등과의 FTA가 최종 성사되면 그 비중은 50퍼센트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 FTA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4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내년 초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초까지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

글 · 공감코리아(korea.kr) 제공

우리나라의 FTA 서명과 발효 현황

발효된 FTA	
한·칠레 FTA	2004년 4월 1일 발효
한·싱가포르 FTA	2006년 3월 2일 발효
한·EFTA FTA	2006년 9월 1일 발효
한·아세안 FTA	상품 2007년 6월 1일 발효 서비스 2009년 5월 1일 발효 투자 2009년 9월 1일 발효
한 · 인도 CEPA	2010년 1월 1일 발효
서명 및 협상 타결 FTA	
한미 FTA	2007년 6월 30일 서명
한·페루 FTA	2010년 8월 30일 협상 타결
한·EU FTA	2010년 10월 6일 서명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상품 교역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



“우수한 영화계 인재 발굴에 발판 되고파”

5백억원대 재산 기부한 아름다운 배우 신영균

원로배우 신영균 씨가 평생 모은 5백억원대 재산을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내놓아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명보극장 등 자신의 영화 인생이 오롯이 담긴 사재를 기부한 그는 “영화계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해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10월 5일 서울 중구 명보아트홀(구 명보극장) 기자회견장. 검정색 정장 차림에 호쾌한 웃음을 지으며 등장한 한 원로배우에게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주인공은 명보아트홀과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등 5백억원대 사재(私財)를 문화예술계를 위해 내놓은 배우 신영균(82) 씨. 선 굵은 카리스마로 1960, 70년대를 풍미한 이 거물급 배우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재산 기부 배경을 밝혔다.

“제 나이도 이제 팔십이 넘었으니 좋은 일을 하고 가야 할 게 아니냐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게 돼 보람이 큽니다.”

명보극장은 그의 영화 인생이 오롯이 녹아 있는 곳이다. 충무로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한 이 건물은 그가 수십 년 전 구

입한 '명보제과'가 성장해 이뤄낸 성과물이다.

"스카라극장이 헐린 자리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섰어요. 명보극장도 팔라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것마저 허물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 대표작인 영화 〈빨간 마후라〉 〈연산군〉도 개봉했고요. 가족회의에서 아들이 '건물을 영원히 남겨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기부할 재산은 새로 설립되는 재단에 출연해 영화계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언론인 출신 김두호 씨, 신 씨의 아들 신언식 한주AMC 회장이 재단의 중심이 돼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기부 얘기하자 장한 일·멋쟁이라며 응원"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인재가 많지만, 시장은 좁습니다. 세계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를 발굴해 그들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번에 만들 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또 좋은 후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의 기부 소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부인 김선희(76) 씨와 금혼식(결혼 50주년)을 맞은 신 씨는 가족과 친지를 초대하는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돌연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한 신문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쾌척했다. '화려한 행사를 벌여 돈을 없애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누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뿐인가. 올해 초에는 아이티 지진 피해 주민 돕기 성금으로 10만 달러를 선뜻 내놓았다. 그는 "돈이 다가 아니다. 참 만족스럽고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의 통 큰 결정에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성원도 한몫했다. 그는 자신의 뜻을 흔쾌히 따라준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저는 행복한 사나이입니다. 집사람에게 기부 얘기를 하자 제게 '장한 일을 했다'고 격려해줬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속이 깊고 효자입니다. 딸은 '아버지, 멋쟁이'라며 저를 응원했고요. 손녀는 '할아버지, 존경해요'라며 기뻐했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화가 왔는데 다들 할아버지가 멋지다고 야단이에요."

원로배우가 거액을 기부한다는 소식에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라는 세간의 궁금증도 커졌다. 그는 "김수용 감독이 나만 보면 '재벌'이라고 하는데, 돈은 좀 있지만 재벌은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현재 제주방송과 SBS의 주주이기도 하다.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자수성가형 부자인 그의 경영 원칙이었다.

"영화배우라는 직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업으로 처음 명보제과를 인수했습니다. 명보제과 수익 외에도 배우 생활로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처음 빵집을 운영했던 아내가 고생이 많았지요. 전문적으로 경영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을 벌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치과의사로, 영화배우로, 사업가로, 국회의원으로 그는 일평생 변신을 거듭하며 살아왔다. 이 중 하나를 택하라면 그는 "당연히 영화배우를 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1960년 〈과부〉로 영화계에 데뷔해 20여 년간 〈연산군〉(1961년) 〈상록수〉(1961년) 〈빨간 마후라〉(1964년) 〈미워도 다시 한번〉(1968년) 등 2백94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1978년 김수용 감독의 영화 〈화조〉는 그가 출연한 마지막 작품. 은막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는 못다한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간절히 드러냈다.

"시나리오를 고르고 있는데, 제게 맞는 작품이 없었어요. 콘텐츠에서 스토리가 중요한데, 요즘 한국 영화를 보면 주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면, 죽기 전 꼭 한 작품에 출연하고 싶습니다." G

글 · 이남희(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원로배우 신영균 씨(왼쪽에서 세 번째)가 기부를 결정하는 데는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왼쪽부터 딸 혜진, 부인 김선희, 신영균, 손녀 시진, 며느리 임치주, 아들 언식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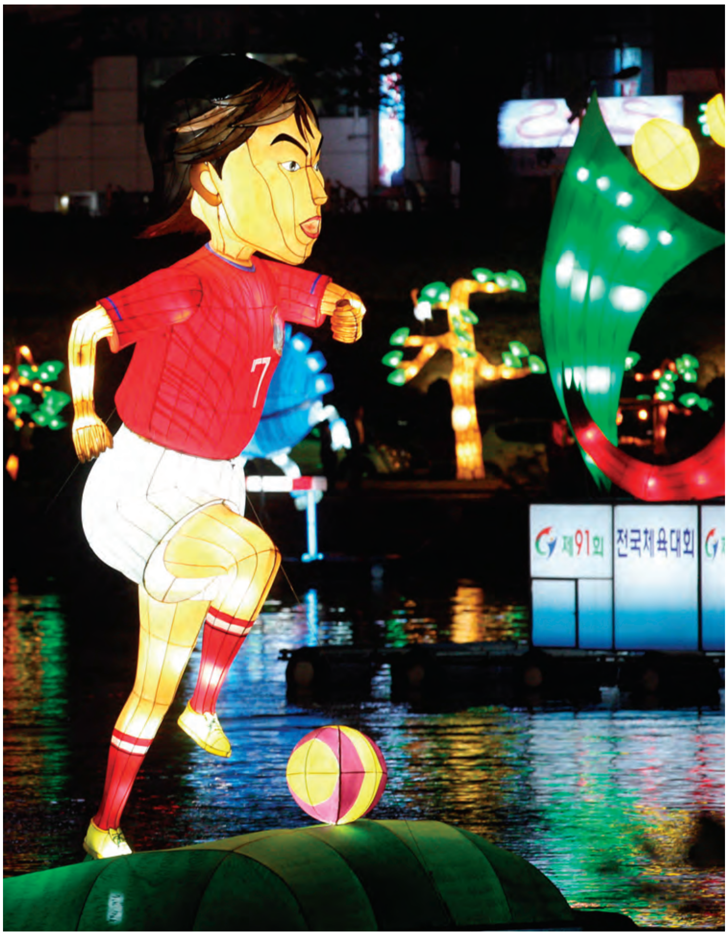




1 10월 6일 경남 진주시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화려한 식전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2 개회식 때 각 시도 지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3 여자 1백미터 허들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 이연경 선수가 힘차게 허들을 넘고 있다.
4 김국영 선수가 또 한 번 남자육상 1백미터 신기록에 도전한다.
5 전국체전 기간 동안 경남 일대에서 진주 남강유등축제 등 풍성한 지역축제가 열린다.
6 FIFA 주관 대회 우승컵의 주역 여민지 선수(왼쪽)가 하형주 동아대 교수와 성화를 점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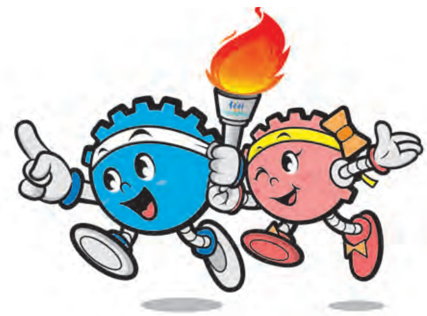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2010년 10월 6일(수)~12일(화)
장소	경남 진주시 진주종합경기장, 김해시 하키전용경기장 등 62개 경기장
슬로건	하나 되어 다시 뛰자, 경남에서 세계로!
출전 종목	육상, 수영, 야구 등 41개 종목 및 당구, 산악, 댄스스포츠 등 3개 시범 종목
선수·임원단	전국 16개 시도 2만3천8백76명
관련 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양산 삽량문화축제, 함양 물레방아골축제 등 25개
문의	055-211-6211　www.2010sports.kr



하나 되어 다시 뛰자, 경남에서 세계로!

스타들과 함께한 제91회 전국체전



'하나 되어 다시 뛰자, 경남에서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91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진주, 김해, 함양 등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열려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열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과 해외동포 16개 선수단 등 모두 1만7천7백73명의 선수가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41개 공식 종목과 당구, 산악, 댄스스포츠 등 3개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11월 12~27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제16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열린 이번 체전에는 종목별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했다. 남자 1백미터의 김국영과 여자 1백미터 허들의 이연경(이상 안양시청)은 한국 육상의 유망주로 신기록 행진이 주목된다. 베이징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고양시청)과 사재혁(강원도청), 배드민턴 '환상의 짝꿍' 이용대-이효정(삼성전기), 펜싱 여왕 남현희(성남시청) 등 쟁쟁한 선수들도 아시안게임을 겨냥한 메달 레이스에 합류했다.

한편 10월 6일 오후 6시 진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월드컵에서 우리나라에 첫 FIFA 주관 대회 우승컵을 안겨준 주역인 여민지(17·함안 대산고) 선수가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하형주 동아대 교수와 나란히 성화를 점화해 큰 박수를 받았다.

1982년과 199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경남도는 체육행사에 문화축제를 접목한 '문화체전'을 만들기 위해 경남 일원의 25개 지역축제를 전국체전과 비슷한 시기에 열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G

글·최은숙 기자 / 사진·연합

"김장배추 한 포기 2천원에 팝니다"

농협, 10월 12일부터 인터넷 선착순 예약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이 3백만 포기의 김장배추를 포기당 2천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농협 김장배추는 10월 12일부터 인터넷으로 선착순 예약을 받아 11월 29일부터 공급한다.

또 김장철 이전의 대책으로 10월 7일부터 농협유통센터(하나로클럽)를 통해 배추 1천 톤을 시중 가격보다 30퍼센트 싸게 판매하고, 농협김치도 추석 전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10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배추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장의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1천 톤을 농협유통센터를 통해 시중 가격보다 30퍼센트 할인해 판매한다. 배추 할인판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수도권 농협유통센터 5곳에서 2백20톤,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4개 농협유통센터(양재, 창동, 성남, 고양, 수원, 달성, 목포, 김해, 울산, 군위, 부산, 청주, 대전, 전주)에서 7백80톤을 판매할 계획이다.

김장철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월동배추 조기 출하 유도

이와 함께 김장철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으로 농협 출하물량을 19만 톤으로 늘리고, 월동배추는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계약재배는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조성한 자금을 활용해 파종(정식)기에 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후 일정한 손익을 분담해 농가소득의 변동 폭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이 중 배추 1만 톤(3백만 포기)은 포기당 2천원에 사전 예약을 받아 김장철에 농협유통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김장배추 주문은 10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농협 NH쇼핑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9포기 또는 12포기(3망 또는 4망)씩 선착순 예약을 받고 있다. 예약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협유통센터를 통해 공급한다.

이 밖에도 농협은 김장 시기에 출하되는 가을배추의 정식(아주심기)이 8, 9월 초 내린 잦은 비 때문에 일부 늦어짐에 따라 배추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국 대도시 지역별로 임시 김장시장 개설, 할인판매 등을 추진하고 김장김치 나누어 담그기, 늦게 담그기 등 소비자 홍보도 병행한다.



동아DB

서울시가 배추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배추를 시중 가격의 70퍼센트 수준으로 판매한 10월 5일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신원시장에는 8백명이 넘는 시민이 몰렸다. 이날 이 시장에 공급된 배추 2천6백70포기는 1시간 반 만에 모두 팔렸다.

농협중앙회 유통담당 강홍구 상무는 "10월 중순부터 강원도 준고랭지 지역의 2기작 배추와 경기 북부지역의 가을배추가 나오면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농협배추 공급이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농협 김장배추 예약판매 NH쇼핑 ☎ 02-397-7026~9 www.nhshopping.co.kr

기 획 특 집

서울 G20 정상회의 D-30

대한민국, 세계 중심에 서다

11월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의 심장은 기대감에 두근거립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병합된 지
1백 년을 맞은 올해, 만국평화회의에 간 이준 열사가 분사(憤死)한 지
1백여 년이 지난 지금, 지구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G20 정상회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도약한 우리나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이끌고 대한민국 외교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달, 최상의 G20 정상회의를 위한 최선의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지난 7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G20 셰르파 회의 개막식.
이명박 대통령과 사공일 G20 준비위원장이 환한 웃음으로 회의장을 밝히고 있다.

'선진 대한민국' 세계에 알리는 축제

英 〈가디언〉 "G20 정상회의 성공은 올림픽 능가하는 효과"

11월 11, 12일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나라 안팎에 성공 개최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퍼센트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정상이 참가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측정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와 무형의 성과를 우리에게 남길 것이다.

"한국이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 이슈를 진지하게 다루는 데 성공한다면 G20 정상회의는 국제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올림픽을 분명히 능가할 것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은 10월 6일 인터넷판을 통해 이렇게 보도했다.

〈가디언〉은 '한국, 개발 의제를 G20 정상회의에 올려'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앞서나가고 세계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환상적이지만 놀랍지는 않다"면서 "개발 의제를 G20의 핵심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다른 G20 참가국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G20가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 탄생한 한계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G20 정상회의의 논의가 금융위기 대응에 과도하게 집중돼왔으나, 금융위기 대응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중요한 많은 이슈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 이 신문의 분석이다.

"개발 이슈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될 것"

따라서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개발 의제를 본격적으로 올리려는 것은 G20의 변천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며, 그동안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에 집중됐던 논의를 개도국과 선진국의 개발격차 해소, 빈곤 퇴치 등의 의제에 집중하면 G20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10월 6일(현지시간) 월례 기자회견



을 통해 "유엔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발 이슈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 이슈는 바로 한국이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올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뒤 주도해온 G20 정상회의 의제 중 하나로 이미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어 있다.

지금부터 1백 년 전 일본에 강제병합되는 약소국의 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으로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한 국제 외교무대의 변방국가였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문턱에서 좌절해 외롭게 분사(憤死)한 이준 열사를 돌아볼 때면 '국제 경제협력의 최상위 논의의 장(場)'인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 한국의 위치가 새삼 감격스럽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코리아 이니셔티브(주도적 구상)'는 지금부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의제 개발과 행사장 마련 등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공적인 회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회의 의제다. 우리나라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주도의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미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한국이 주도한 의제를 의장성명에 반영하도록 이끌었던 우리나라는 지난 8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하도록 주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발 이슈 역시 〈가디언〉을 비롯해 세계인의 관심을 끌면서 한국이 G20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평가와 위상 변화 이외에도 서울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효과는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가브랜드 제고는 물론 이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21조5천5백76억~24조6천3백95억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G20 정상회의로 국가브랜드 제고·유무형 경제적 효과

이 보고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행사 자체의 직접효과 1천23억원 ▲간접효과 21조4천5백53억~24조5천3백73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국의 경제성장률(2009년 기준) 2퍼센트 포인트에 해당되며 현대 쏘나타 기준으로 자동차 1백만 대,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1백65척(1대당 1억1천만 달러) 수출과 맞먹는다.

하지만 이보다 주목할 것은 이 보고서의 다른 부분이다. "계량화된 직간접적 경제적 가치는 빙산의 일각이다. 국민의 자긍심 고취, 글로벌 마인드 함양, 기업의 신성장동력산업 확충,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요인 완화 등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는 유형의 가치를 크게 능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우리말을 꼽을 때 흔히들 '정(情)'이란 말을 예로 들기도 하지만 '신명'도 외국어로 옮기기 어려운 우리말이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바로 이 신명을 우리 민족의 기질적 특성의 하나로 꼽았다. 판이 벌어지면 신이 나서 뭔가 더 잘하려 드는 신명, 1988년 서울올림픽의 신명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 2002 한일월드컵의 신명난 붉은 함성은 크게 자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다.

이제 2010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선진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성숙한 신명의 잔치가 되어 '무형의 가치'를 우리 곁에 가져올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G20, 검소·실용적 '친환경 회의'로

오찬·만찬·문화행사 등 '코리아 프리미엄' 이미지 기대

화려한 외양은 가라. 서울 G20 정상회의는 회의장 조성과 각국 대표단 지원 등에서 화려함을 지양하고 기능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공간과 동선을 만든다. 행사장 디자인, 각종 오찬과 만찬, 문화 행사 등에는 한국적인 디자인과 첨단 정보기술(IT) 보유국의 면모를 자연스럽게 드러내 '코리아 프리미엄'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주게 된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참가국과 국제기구 대표, 정부 대표단, 취재진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사상 최대의 G20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월 8일 현재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 G20 정상회의 참가 외국 정상은 모두 21명이다. 유럽연합(EU) 대표로 상임의장, 집행위원장 등 2명이 참석하기 때문이다. 비회원국 정상으로는 스페인, 베트남, 말라위, 에티오피아, 싱가포르 등 5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또 이들 5개국 외에도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있는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7개 국제기구 대표도 초청됐다.

이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 참가 규모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등을 포함한 정부대표단 약 6천명 ▲취재진 약 4천명 등 모두 1만여 명이며, 행사 관계자(외곽 경비인원 제외)만도 7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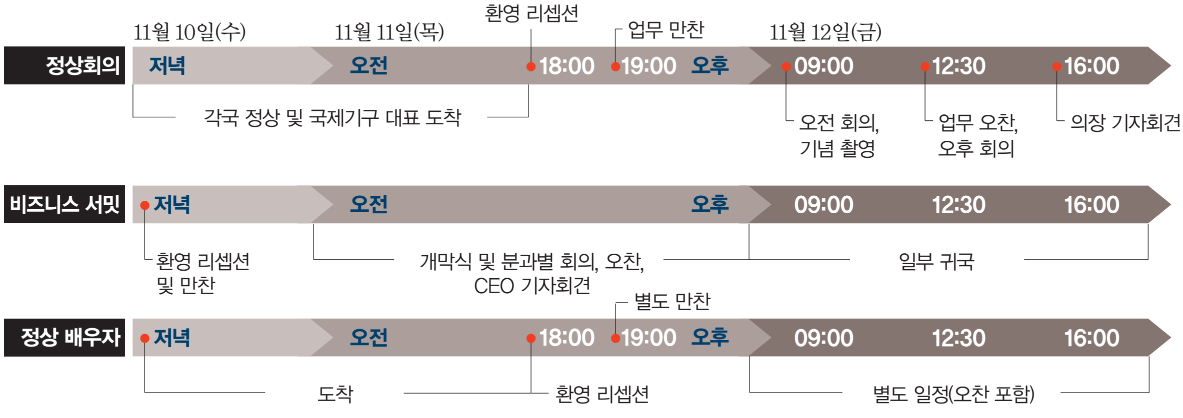
이는 역대 G20 정상회의 중 가장 큰 규모였던 지난 6월의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때보다도 큰 규모로, G20 정상회의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전망이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경우 공식등록 결과 ▲대표단 5천4백51명 ▲기자단 3천명(실제 프레스카드 수령자 2천5백명) 규모였다.

의전 서열, 국가수반→정부수반→국제기구 대표 순으로

이렇게 많은 지구촌의 내로라하는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정상회의 중 누가 먼저인가 하는 의전 서열도 여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준비위원회는 의전 서열을 국가수반(Head of State)→정부수반(Head of Government)→국제기구 대표 순서로 정했다. 또 정상의 경우 동일 그룹 내에서는 취임 일자 순, 국제기구는 유엔 선임, 여타 기구는 설립년도 순으로 의전 서열을 정해 회의장과 오·만찬장의 좌석 배치, 행사장 도착과 출발 순서, 기념촬영 시 위치 선정 등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의사진행의 효율성, 특별한 의전상 고려 등에 따라 의장 재

서울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 세부 일정



*11월 12일 오후에는 만찬 및 문화공연(일부 정상 내외와 고위 수행원, CEO 등 참석)이 예정돼 있다.



동아DB



동아DB

▲ 11월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G20 정상회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경.
◀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코엑스에서 10월 1일 열린 G20 대비 선진 시민의식 제고 캠페인. 바디페인팅을 한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량으로 좌석 배치는 일부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준비위원회는 회의장 조성, 각국 대표단 참가 지원 등 행사 전반에 걸쳐 화려함을 지양하고 검소하면서도 실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정상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행사장의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적인 공간 배치와 동선 구성을 하고 있다.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종 자재, 물품에 대한 재활용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조명, 음향 등 주회의장 내 소요물품은 대부분 임차해 신규 제작물을 최소화하고 테이블 및 의자 등 신규 제작물은 정상회의 후 재사용(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등에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

회의장, 기능·효율성 중시… 행사장, 기능적 공간 배치

준비위원회는 정부예산 절감, 우리 브랜드의 국제화 등을 위해 자발적인 행사장 사용 물품 협찬 제안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성, 필요한 수량 등을 감안해 되도록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찬사가 적정한 방법으로 협찬 사실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으나 '공식 지정' '후원사' 등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녹색성장'의 선두주자가 돼온 우리나라답게 탄소배출 최소화, 에너지 절감 등으로 '친환경회의'를 추구한다. 일회성이나 소모성 물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행사장(주회의장 제외)에는 기본 자재의 90퍼센트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행사장 안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사용하며 준비위원회 공용차로는 전기차를 이용한다.

행사장 디자인, 각종 오찬과 만찬, 문화 행사에서는 우리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 첨단 정보기술(IT) 보유국으로서의 면모를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높이게 된다. 각종 오·만찬 메뉴에 한식 식자재와 한식을 포함시켜 한식 세계화에 기여하며, 우리 기업의 첨단 기술 및 제품(IT, 친환경 자동차, 원전, 고속철도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전시 기회를 마련한다.

준비위원회는 이를 위해 ▲행사장 조성 ▲문화 행사 ▲컨벤션과 컨벤션 대행업체(PCO) ▲통역 ▲식음료 등 5개 분야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단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행사장 조성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오인욱 경원대 실내건축학과 교수는 "우리 전통미와 녹색성장을 함께 살리면서도 품격 있는 행사장을 만들기 위해 간결하고 경제적인 행사장 디자인을 정하느라 고심했다"며 "기능성과 효율성,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품격을 갖춘 행사장을 만들기 위해 막판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주행사장 조성과 운영, 리셉션과 오·만찬 행사 등에 우리나라 PCO들이 참여해 서울 G20 정상회의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컨벤션산업 기반 육성에도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준비위원회 서형원 행사기획국장은 "경쟁 입찰을 거쳐 6개 국내 PCO에 이번 행사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며 "세계 정상급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 조성과 운영 경험은 앞으로 우리나라 컨벤션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EPA


연합


HSBC


연합


AP

프랑스도 비즈니스 서밋 벤치마킹

글로벌 CEO 100여 명 참석… 11월 10일 개최

서울 G20 정상회의 비즈니스 서밋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하는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다. G20 체제에 민간 참여 채널을 구축하는 사실상 최초의 시도인 비즈니스 서밋은 차기 G20 정상회의에서도 개최가 확정돼 국제무대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상징이 되고 있다.

G20 비즈니스 서밋 소주제별 작업반과 한국 기업 참여 현황

분 과	소주제	컨비너(회의 주재자)	한국 참석 기업
무역투자	무역 확대 방안	빅터 펑 (리앤펑 그룹 회장)	현대자동차
	외국인 직접투자	페터 브라베크 (네슬레 회장)	
	중소기업 육성	스티븐 그린 (HSBC 회장)	LG
금융	금융과 실물경제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터드 CEO)	
	출구전략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	KB금융지주, 대우증권
	인프라·R&D 투자	마쿠스 발렌베리 (일렉트로룩스/SEB/Saab 회장)	한화, 한진
녹색성장	에너지 효율	락시미 미탈 (아르셀로미탈 회장)	포스코, GS
	신재생에너지·천연자원 개발	최태원 (SK 회장)	삼성
	녹색일자리	디틀레프 엥겔 (베스타스윈드시스템 CEO)	현대중공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혁신·생산성	조지프 선더스 (비자 회장)	KT
	청년실업	자얀시 고팔라크리슈난 (인포시스 CEO)	롯데, 교보생명
	의료·아프리카	하세가와 야스치카 (다케다제약 CEO)	두산

서울 G20 정상회의 비즈니스 서밋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의 정상회의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코리아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입증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 2011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서울 G20 정상회의와 더불어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을 '벤치마킹'해 자국에서도 개최키로 결정함으로써 비즈니스 서밋을 G20 정상회의와 더불어 정례화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비즈니스 서밋은 세계의 '톱 클래스' CEO들이 각국 정상들과 함께 세계경제의 활로를 찾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첫 '글로벌 민관 협력체제'다.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 글로벌 CEO 1백여 명 참석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의 경제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이러한 논의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개최되는 비즈니스 서밋은 민관이 마주 앉아 주요 경제사안에 대해 직접 대화하는 전례 없는 형식의 글로벌 민관



비즈니스 서밋의 12개 소주제별 컨비너들. 빅터 펑 리앤펑 그룹 회장, 페터 브라베크 네슬레 회장, 스티븐 그린 HSBC 회장,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터드 CEO,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 마쿠스 발렌베리 일렉트로룩스 회장, 락시미 미탈 아르셀로미탈 회장, 최태원 SK 회장, 디틀레프 엥겔 베스타스윈드시스템 CEO, 조지프 선더스 비자 회장, 자얀시 고팔라크리슈난 인포시스 CEO, 하세가와 야스치카 다케다제약 CEO(사진 왼쪽 위부터).



EPA



AFP

공조 채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인 11월 10, 11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글로벌 CEO 약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글로벌 CEO는 '포춘 2백50대 기업'을 중심으로 초청하되 G20 회원국 CEO 약 80명, 비(非)G20 회원국 CEO 약 20명 등 모두 1백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개막 첫날인 11월 10일 저녁에는 리셉션과 환영만찬이 열리고 다음 날인 11일 오전 8시 20분 개막총회가 시작된다. 이어 4개 어젠다(주제)별 회의가 이어지고, 공식 기자회견을 끝으로 1박2일 일정이 마무리된다.

12개 소주제별 보고서 집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CEO 중 일부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며, G20 정상 중 일부는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할 글로벌 CEO 일부와 한국 기업인, 이들 기업이 활동할 작업반(Working Group)은 이미 확정돼 있다.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4개 어젠다 아래 각각 3개씩의 소주제에 따른 작업반이 만들어져 있다. 또 이러한 작업반을 이끌 컨비너(회의 주재자)도 정해져 있다.

글로벌 CEO들은 12개 소주제별로 작업반에 편재되어 비즈니스 서밋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해당 분야 보고서를 집필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인들은 기업들의 선호도, 컨비너의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2개 소주제별 작업반에 고루 배정됐고 지난 9월 초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4개 어젠다별로 ▲무역투자에 현대자동차, LG ▲금융에 KB금융지주, 대우증권, 한화, 한진 ▲녹색성장에 포스코, GS, 삼성, 현대중공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KT, 롯데, 교보생명, 두산이 배정됐다.

소주제별 보고서 집필은 실제로 기업 대표가 지정하는 임원급 대리인들이 중심이 되어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서밋 회의 당일에는 보고서를 토대로 쟁점을 토론해 의미 있는 내용이 도출되며, 그 결과를 G20 정상회의로 연결함으로써 일련의 프로세스가 완성된다.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서밋이 하루 만의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차례의 사전 회의를 통해 참석 CEO 간 긴밀한 조율을 거쳐 보고서를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미 지난 9월 13, 14일 중국 톈진에서 오영호 비즈니스 서밋 집행위원장과 컨비너인 페터 브라베크 네슬레 회장, 자얀시 고팔라크리슈난 인포시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간회의가 개최돼 일부 작업반은 이미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상태다. G

글 · 박경아 기자



G20 정상회의 한 달을 앞두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협력국 미디어센터 운영과는 맨 먼저 서울 코엑스에 자리를 잡았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협력국

"배려·공감 키워드로 대한민국 알리겠다"

이제 한 달 남았다. 그간 분주히 일해오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막바지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G20 정상회의가 열릴 서울 코엑스로 가장 먼저 들어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협력국 미디어센터 운영과를 찾아 긴박한 준비 현장을 둘러봤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10월 2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 소속 홍보협력국 직원들은 본격적인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짐을 쌌다. 그리고 10여 개월간 일하며 정들었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건물을 떠나 G20 정상회의가 열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

미디어센터 운영과, 미디어협력과 등으로 이뤄진 홍보협력국은 이름 그대로 G20 정상회의의 홍보를 돕는 곳이다.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원활한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코엑스에 대규모 미디어센터를 만들고 우리나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주 업무다. 미디어센터를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홍보 콘텐츠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마련해야 하다 보니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중 맨 먼저 최전방에 나서게 됐다.

14개 언어로 된 통역 안내센터 설치해 언어적 불편 해소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는 공사는 10월 16일부터 시작된다. 기자 작업실, 국제방송센터, 국가별 브리핑룸 등 그동안 구상했던 계획들을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일일이 점검하는 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10월 6일 코엑스에서 만난 정인규 미디어센터 운영과장은 A4 용지에 빼곡히 적힌 일정을 보여주며 "지금부터 G20 정상회의를 위한 진짜 준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원, KTV까지 국가

홍보와 관련된 부서에서 17년간 일해온 정 과장은 '미디어 홍보의 달인'으로 통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찾은 세계 각국 취재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는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를 찾아 취재 지원의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준비한 미디어센터팀과 여러 번 접촉해 미디어 취재 지원에 관한 완벽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다.

"전 세계 4천여 명의 취재진이 G20 정상회의 행사장에 오게 될 거예요. 이들 모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갖춰 한국의 글로벌 매너에 '공감'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영어권 국가에서 열리는 첫 번째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다. 정 과장은 "베트남어, 아랍어 등 14개 언어로 된 통역 안내센터를 설치해 언어적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디어센터 안에 6개의 대형 스크린과 16대의 디지털 정보 안내 스크린을 설치해 행사장 곳곳에 G20 정상회의 실시간 정보를 내보내고, 24시간 미디어 연락관이 상주해 취재와 관련한 다양한 비상사태를 해결할 예정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 등 한국문화 간접 체험 기회 마련

올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파견된 미디어센터 운영과 이경우 사무관은 미디어센터 내 우리나라 홍보를 책임지는 IT(정보기술) 한국홍보관, 3D TV관의 세부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위기극복 의지를 선물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 콘텐츠와 유네스코에 등록된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마련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박2일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엑스로 옮겨온 이후 미디어센터 운영과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활기가 되살아났다. 10명 내외였던 이들을 돕기 위해 G20 정상회의 자원봉사를 지원한 11명의 젊은이들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G20 정상회의의 손과 발이 되기로 자처한 이들은 영어 능통자나 해외 경험이 풍부한 20대 중후반의 대학생 혹은 졸업생이 대부분이다. 미국 뉴욕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최유진(25) 씨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개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정인규 과장은 매일 같은 꿈을 꾼다. 자신이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뛰는 모습이 그려지는 꿈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송경진 특별보좌관

"G20, 룰 잘 지켜진 회의로 기억될 것"



조영철 기자

"G20 정상회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송경진(43) 특별보좌관에 대한 사공일 G20 준비위원장의 평가다. 준비위원회에 속한 직원의 80퍼센트 이상이 남성인 상황에서 그는 여성으로서 준비위원회를 이끄는 핵심인물이다. 2008년부터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40권이 넘는 노트에 적어 분석해왔다는 'G20통(通)'인 그를 만났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한 달 남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시작된 G20 관련 회의들을 보면 그간 우리나라가 G20를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준비해온 대로 잘 치러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준비해온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G20 정상회의가 치러졌습니다. 이전의 G20 정상회의가 기틀을 잡는 구실을 했다면 서울 G20 정상회의는 그 룰들이 잘 지켜진 대표적인 회의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엔 기존 이슈들과 함께 개발 의제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또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TUC)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국력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 이득보다 중요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사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맡아 하고 있지만 국민적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찾은 G20 정상회의 회원국들도 한층 발돋움한 대한민국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꿈속에서 G20 정상회의를 몇 번이나 치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눈만 감으면 행사장 도면이 떠올라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제 행사를 치렀지만 이번 G20 정상회의는 우리가 직접 주도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실수 없이 무사히 치러내고 싶습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관세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의 위험요소 사전 제거와 감시 시스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관세청 직원이 승객들의 수하물과 휴대용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하늘·바닷길'도 촘촘… 꼼꼼… 철통 경비

관세청, G20 정상회의 안전 위해 관세국경감시 종합상황실 가동

10월 6일 오후 대전 관세청 내 관세국경감시 종합상황실. 인천 남항 폐쇄회로TV(CCTV) 모니터를 확인하던 윤영선 관세청장이 인천세관 상황실 직원에게 지시를 한다.

"남항 ○○구역 선박 ○○○○번호 차량 카메라 확대해서 잡아보세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배로 들어가네요."

(잠시 뒤) "네, 확인 결과 차량은 남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A사 차량입니다. 배로 들어가는 사람도 신원이 확인된 A사 직원들입니다."

이날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위해 관세청 내 관세국경감시 종합상황실을 연 날.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하도록 감시 시스템을 완비한 것이다.

종합상황실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직원 5명이 각 본부세관 상황실과 연계해 선박의 출항지부터 목적지까지 항적과 화물의 국내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위험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거나 전달하도록 한 '관세국경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테러정보종합센터, 경호안전통제단과 연합 감시 기능도 담당한다.

'G20 감시 모드'에 돌입한 관세청의 경비태세가 삼엄하다. 공항과 항만 등 국경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 관세청으로서는 여느 기관과 달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만큼 올해 초부터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대응 수위를 한 단계씩 높여왔다.

X-레이 검색기·문형금속탐지기 등 공항·항만에 집중 배치

하루 평균 9만4천여 명이 입·출국하는 공항은 관세청의 가장 중요한 감시지역이다. 이미 차량형 컨테이너 검색기 4대를 10월 말까지 신규 도입해 공항에 배치했다. 휴대용 폭발물 탐지기와 X-레이 검색기, 문형금속탐지기 등 첨단 과학검색장비도 공항과 항만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월 2회 이상 G20 대비 대(對)테러 종합모의 훈련도 끝낸 상태다. 총기류와 폭발물이 담긴 수하물을 찾아내 안전하게 처리하는 실전훈련도 마무리했다.

최근에는 육군, 경찰청과 함께 폭발물 탐지견 19마리, 총기류 탐지견 3마리가 참여한 '개코 합동훈련'도 끝냈다. 80마리의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을 운용하는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총기류 탐지견 양성에도 나섰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 양길남 훈련교관의 설명이다.

"총기류 탐지견은 총을 쏜 뒤 남은 초연가스와 총기에 바른 오일 냄새만으로 총기류를 찾아내야 하는데 훈련 과정이 무척 까다롭다. 그만큼 총기류 탐지견을 직접 양성하는 나라는 극소수다.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집중 양성했다."

우편물 수취인 주소·이름 불명확한 물품 전량 검사

공항에서 통관이 늦으면 여행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11월 1일부터 모든 항공기에서 내리는 기탁수하물과 휴대용 가방을 일제 조사하기로 한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X-레이 검색기와 탐지견을 집중 배치하는 것도 통관시간을 줄이고 완벽한 일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는 기본. 공항의 '통제구역'인 X선 검사실에도 수십 대의 모니터가 비행기에 실린 짐을 꿰뚫어본다. 이곳에 근무하는 판독관의 대부분은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베테랑.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실제 총기와 폭발물 1백여 점을 보고 X레이 영상을 찍어 판독하는 교육도 마쳤다.

바닷길도 마찬가지다. 하루 평균 2백39척이 입항하는 항구(전국 24개)와 하루 평균 6척이 드나드는 부두(전국 2백32개)에서도 영상감시와 기동감시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미 지방해양항만청과 민자부두 운영인, 군부대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유사시 합동 대응을 하기로 한 상황이다. 앞서 관세청은 2007년 3월 인천본부세관 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독일제 모의권총 1정과 실탄 1백 발을 찾아낸 바 있어 경계는 더욱 삼엄하다.

인천본부세관 감시과 민병조 계장은 "49개 CCTV에 전자지도 시스템과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조기경보 시스템 등이 있어 총기류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이 들어올 경우 즉시 잡아낸다"고 말한다.

전국 24개 항에서 매일 입항하는 2백39척의 배를 '선제적'으로 감시하려면 공항처럼 첨단 장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부두에는 철판 두께 40센티미터를 뚫고 5세제곱센티미터의 납 벽돌을 판독할 수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가 철벽 방어를 예고하고 있다. 컨테이너 이동 X-레이 판독기도 수시로 항구를 이동하며 감시한다. 인천본부세관 고정호 감시관의 설명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X-레이 검색차량을 적극 운용하고 있다. 터미널 인근 주차 차량 적재함에 실린 무기나 마약을 찾는 데도 효과적이다."

하루 평균 2만1천5백여 건이 들어오는 특급 탁송화물과 하루 평균 9만7천5백여 건이 들어오는 국제우편물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우편길'을 통해 호텔이나 역 등 공공장소에 배달된 화물이나 우편물에 폭발물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총기류 등을 분해해서 들여올 수도 있다.

관세청은 통상우편물에 대한 X-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안보 감시 관심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종전 4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확대했다. 수취인 주소와 이름이 불명확한 물품은 전량 선별검사하기로 했다.

이사화물에 대해서도 전기·주방용품 등을 통해 총기류와 폭발물 반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사 당사자의 여행자정보시스템 조회와 X-레이 검색기, 탐지견 등을 통해 위험 상황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G

글 · 배수강(동아일보 주간동아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청은 수하물과 통상우편물에 대한 X-레이 검색을 강화했다.

10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개소식을 가진 경호안전 종합상황실. 국내에서 치르는 사상 최대의 국제회의 경호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곳이다.

첨단화된 기술과 장비로 운용되는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은 전 유관기관 근무자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유관기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각 작전본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단 한 차례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 국내외 테러와 시위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다 보니 이곳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상황실 근무자들은 국내외 상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수십 대의 상황판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심지어 수화기를 들고 통화하면서도 모니터를 응시해야 한다. 행여 뉴스에서 '테러'나 '시위' 혹은 'G20' 같은 단어가 눈에 띄면 긴장한다. "바람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할 수밖에 없다.

"세계 주요 정상들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경호하는 것은 물론, 테러를 방지하고 폭력시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경호와 안전을 맡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기획조정실장의 말이다.

경호안전통제단의 업무는 모든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함께해요, 안전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적정한 테러·시위 대처로 국민 불편 최소화

경호와 안전에 관한 한 서울 G20 정상회의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범정부 차원의 경호안전통제단이 출범, 각종 경호안전에 관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경호안전통제단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10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경호와 안전 활동에 돌입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위해 10월 1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 문을 연 경호안전 종합상황실. 수십 대의 모니터들이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반도 안팎을 24시간 지켜보게 된다.

속에서 진행된다. 각종 상황의 파악부터 전파, 대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협조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은 이러한 경호안전통제단의 G20 정상회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 작전본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뿐 아니라 회의장과 숙소 등 각종 행사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다.

군 작전본부 작전팀장은 "한반도 육해공 상황을 주시하며 각종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군이 국가적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6개 유관기관 공조로 24시간 대응 태세

실제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10월 4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연합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미 군 당국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과 비무장지대 및 판문점 일대 도발 등 북한의 공격을 상정한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예컨대 경호경비작전으로 지상에는 행사장 외곽 등에 병력을 배치하고 해상에서는 해경과 합동으로 해상 침투와 공격 등에 대비하면서 도서지역 안전관리를 하고 공중에서는 특별기 전투초계비행과 대공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경호안전통제단은 최근 유럽에서 테러조직 알카에다에 의한 파리 에펠탑과 노트르담 성당, 베를린 중앙역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무차별 테러 계획이 밝혀지는 등 테러와 폭력시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네 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 각종 폭력시위가 따르기도 했다. 경찰작전본부 기획팀장은 "우리나라도 평화유지군(PKO) 참여로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되어 과격 테러조직과 연계한 국내 자생 테러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게다가 반세계화 세력에 의한 원정시위대가 20여 개 단체나 활동하면서 G20 정상회의의 단골손님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호안전통제단은 '안전한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폭력시위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그 첫째가 국제 테러조직 차단으로, 국제 공조를 통한 정보체계를 가동해 테러 용의자의 입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는 범법 외국인들의




조영철 기자

지문과 얼굴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을 운용해 신분세탁 후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 등 위명여권 사용자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또 행사장에 대한 직접 타격만이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의 테러나 방화에 의한 화재 등 안전문제도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소방출동 등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경계태세를 격상함과 동시에 도시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을 안전구역으로… 사이버테러에도 대비

근래에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된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도 경호안전의 주요 사안이다. 국제 테러조직과 북한 등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호안전통제단은 사이버테러대응팀을 가동, 실현 가능한 공격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시험을 마쳤으며 악성코드 배포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대비하면서 주요 행사장과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성공적 행사를 기대하기엔 부족하다. 성공적 행사를 위해 실시되는 통제라 해도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면 국가적 축제로 승화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호안전통제단은 모든 국제 테러와 폭력시위에 대처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고심하고 있다.

경호안전통제단은 이를 위해 국민 편익을 고려한 '최소한의 통제' 방안을 찾고 있다. 예컨대 과학적 통계를 바탕으로 통제대책을 수립하고, 영업을 고려해 최소한의 제한을 하는 식이다. 불가피한 차량 통제의 경우에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 대체 교통수단과 우회도로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기동로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지만 평화시위는 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경호안전통제단 관계자는 "이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은 경호구역 전 지역에 이중펜스를 설치해 인원과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하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최소구역에 대해 일정시간만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테러와 폭력시위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손쉬운 '전면 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다. 하지만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통제대책은 국민 동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경호안전통제단의 판단이다. 세련된 경호기법을 적용해 위해세력을 차단하고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경호안전통제단의 선택에서 자신감이 엿보인다.

경호처를 중심으로 한 경호 유관기관 통합조직인 경호안전통제단은 그동안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와


동아DB

서울 G20 정상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6개 유관기관 협조로 발족한 경호안전통제단이 요인 경호(왼쪽 사진)와 코엑스 행사장 안전훈련(오른쪽 사진)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APEC·에이펙) 그리고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등 굵직한 행사를 치르면서 정상회의 경호와 안전에 경험을 쌓아왔다.

교통량 분산 위해 다양한 기동로 선정 예정

서울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경호안전통제단은 '함께해요, 안전한 G20'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경호는 국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적용한 슬로건이다.

국민과 함께 G20 정상회의를 치르는 모습을 통해 선진 시민의식으로 뭉친 안전한 한국을 세계 각국에 알리려는 의지의 표현이자 그동안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며 터득한 노하우에 대한 자신감인 셈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한 달. 아셈타워에 들어선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은 밤낮 없는 근무체계로 빈틈없는 경호안전 태세를 유지하며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반도에 들어서는 순간의 '손님맞이' 준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무결점 경호안전'으로 국격 상승의 도우미가 되고자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의 열망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마치는 날까지 매일 매 순간 대한민국의 경호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10월 1일부터 'G20 경호특별법' 시행

서울 G20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이 'G20 규탄 행사'에 열을 올리고 국제 비정부기구(NGO) 조직과 연계한 반대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의 장(場)이어야 할 G20 정상회의가 자칫 테러와 시위로 얼룩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회가 한시적 법률로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 경호특별법)'을 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성공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담은 법률임에도 일부에서는 G20 경호특별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유포되고 있다.

먼저 정상회의장 주변에 설치되는 철제 펜스에 대해 '과잉대응'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장 주변에도 3미터 높이의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당시 평화시위가 폭력사태로 비화돼 경찰차가 불타고 각종 건물의 유리창이 박살났으며 최루탄이 시가지를 뒤덮는 사태로 치달았다.

또 일부에서 G20 경호특별법이 마치 '계엄령'인 듯 호도하고 있으나 G20 정상회의 같은 국제적 대형 행사에는 경찰인력만으로 수많은 도시 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G20 경호특별법을 통해 민간인 비접촉 지역에서 군 병력을 배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수도방위 등 고유임무를 수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군사도발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임무 특성상 군 전술이 필요한 화생방, 대공 및 해상 감시, 폭발물 처리 등에서 군의 협조를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도 G20 정상회의 행사 기간에 군 작전본부가 경호에 참여한 바 있다.

또 다른 오해는 G20 경호특별법이 경호안전구역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호안전구역 설정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지정된다.

국제적으로도 대규모 국제행사 기간에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는 방문국가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당시 발생한 폭력시위 장면.

‘글로벌 예의지국’ 보여줍시다

‘내리는 사람 먼저’ 등 글로벌 에티켓 실천 캠페인

11월 11일 도로 위에서도 식당에서도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시민들이 만드는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세계인의 마음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에티켓 실천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상사인 정 과장에게 센스 있게 커피를 주고 점수 따기 가산점 5점 추가.
상사에게 문 열어주고 점수 따기 가산점 추가.
그러나 뒤에 따라 들어오던 외국인이 문에 걸리고….
에티켓이란 직장 상사에게 점수 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에티켓으로 멋진 글로벌 시민이 돼요.

국가브랜드위원회와 한국방문의해준비위원회가 케이블방송 tvN과 함께 만든 ‘글로벌시민 탐구생활’의 한 장면이다. tvN의 인기 프로그램인 ‘롤러코스터 남녀탐구생활’ 버전의 이 캠페인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인의 글로벌 에티켓에 대한 다양한 상황과 실제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제작됐다.



아무 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리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도로에서는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사람들….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우리 국민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생활예절과 질서 지키기는 아직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국제행사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경제뿐 아니라 법과 윤리, 정치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국격을 확실히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에티켓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에티켓 개선안을 마련했다.

1 외국인을 만나면 웃어보세요

한국에 5년째 살고 있는 캐나다인 윌리엄스(41) 씨는 “한국인은 눈을 마주쳤을 때 먼저 인사를 해도 반응이 없다”며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르는 사이라고 해도 같은 공간에 있다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인사를 건네는 것은 외국에서는 당연한 에티켓이다. 이제 외국인을 만나면 “헬로” 하면서 웃어보자.

2 공공장소에서는 볼륨을 낮춰요

“어디야? 난 ㅇㅇ역인데.” 아직도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하철,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MP3 볼륨도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낮추자.

3 내리는 사람 먼저

선진국에서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지하철에서 내릴 승객이 다 내리면 그때부터 올라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하철이 도착하면 너도나도 먼저 타기에 바쁘다.



줄을 서고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자.

4 쓰레기는 휴지통에

길거리에 버리는 담배꽁초나 껌을 치우기 위해 적지 않은 세금이 사용된다. 무심코 혹은 슬쩍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시민 전체의 호주머니를 터는 셈이다.

5 '악플'은 이제 그만!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겉으로는 예의 바른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난폭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이지 않는다고 '악플'을 다는 행동은 이제 바꾸자.

6 건전한 음주문화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해요. 업무시간 외에 저녁이나 주말을 왜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죠?" 호주인 스미스(28) 씨는 한국 회사원들의 술문화, 밤문화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외국에서는 보통 저녁시간에 도수가 낮은 맥주나 포도주를 가볍게 즐기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마시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억지로 술 권하기, 잔 돌리기, 폭음, 음주운전 등 좋지 않은 술문화는 버려야 한다.

7 교통질서 지키기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운전하기 힘든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끼어들기, 꼬리물기, 난폭운전, 나만 먼저 가면 된다는 생각에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은 그만두자. 모두 자신의 차로를 지키면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교통질서 지키기로 교통 사고율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 이제는 깨뜨리자.

8 지나가다 부딪쳤을 때는 "미안합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은 '빨리 빨리' 나라다. '빨리 빨리'를 외치는 분주한 일상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에티켓을 사라지게 했다.

이젠 좀 여유를 갖고, 지나가다 부딪쳤을 땐 잠깐 멈춰 서서 미안하다고 말하자. G

글·이혜련 기자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글로벌 에티켓 운동 활발

"글로벌 에티켓은 작은 배려에서부터"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에티켓을 확산시키자는 시민운동이 활발하다.

10월 5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 2천여 명은 서울 광화문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 기원 나라 품격 높이기 및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 코리아 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회원들은 광화문에서 한국프레스센터까지 '뒷사람을 위해 문 잡아주기'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자제하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끼어들기, 꼬리물기, 음주운전 안하기' 등의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참여를 호소했다.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우리 국민과 나라의 품격을 높여 선진한국을 앞당기기 위해 스마트 코리아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도 '밝은 미소 짓기' '예의 바르게 전화하기' 등 친절한 한국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한 줄로 서기' '우측통행' '교통질서 지키기' 등 서울 G20 정상회의를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공중화장실 설계공모전' '공중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기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김원철 기획본부장은 "우리 사회에 글로벌 에티켓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시민문화운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민병철 건국대 국제학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G20글로벌에티켓운동연합도 '우리 국민의 글로벌 에티켓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전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 타기' '공공장소에서 침 뱉지 않기' '험담 대신 칭찬과 격려 하기' '미안합니다 먼저 말하기' 등이 모두 기본적인 예절이다. 민 회장은 "글로벌 에티켓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동아DB

서울 G20 정상회의를 글로벌 에티켓 확산의 계기로 삼자는 시민운동이 활발하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들이 10월 5일 서울 광화문네거리 일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스마트 코리아 운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조영철 기자

'G20 정상에게 말하세요'는 각국 정상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행사다.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에 있는 '토킹 부스'를 찾은 어린이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피겨 전용 링크장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김연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희 동방신기가 앨범을 내고 팬들을 위해 미국 여러 도시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트위터를 통해 이 내용을 RT(리트윗·재전송)해주실 수 있을까요?"

믹키유천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팬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와 춤을 선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일본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영웅재중이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1월 11, 12일 서울을 방문할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유명인들이 보내는 동영상 메시지다. 짧은 동영상(20초 이내)이나 문자메시지(1백 자 이내)로 참가국 정상들에게 궁금한 점을 묻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G20 정상들에게 말하세요(Talking to the G20 Leaders·일명 TTL)' 캠페인에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 캠페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용 홍보 부스(일명 토킹 부스)와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참여 열기가 뜨겁다.

먼저 오프라인 캠페인은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에 설치된 토킹 부스 및 전국 축제현장, 대학가 등을 찾아다니는 이동형 토킹 부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주중 하루 평균 3백~3백50명이 참여해 부스 안에서 직접 동영상 메시지를 녹화하고 있다.

코엑스 밀레니엄광장 인근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인영(34)씨는 10월 6일 점심시간에 캠페인 부스를 찾아가 동영상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화면에 등장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국민 참여형' 홍보로
G20 정상회의 응원 물결



서울 G20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데는 유명인과 일반인의 구분이 따로 없다. 온·오프라인에서도 한마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성원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물결치고 있다. G20 정상회의가 국민 모두에게 친근한 축제로 다가가게 하는 데는 소통을 주제로 한 '국민 참여형' 홍보가 한몫하고 있다.

함께 사진을 촬영한 후 “강한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는 메르켈 총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동영상으로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전달하니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바로 옆에서 찍은 듯 생생한 기념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며 즐거워했다.

캠페인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동영상과 문자메시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공경록 군은 동영상에서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국왕님!”이라고 또박또박 호명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석유가 많죠, 저희도 좀 주세요”라고 애교 섞인 청을 했다.

정현욱 씨는 문자 게시판을 통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로 북한을 경유해 기차로 가고 싶어요. 재 생애에 그럴 날이 오겠죠?”라고 물었다.

영국인 앤드루 씨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 학생도 한국 대학에 쉽게 입학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G20 정상회의 홍보 부스 · 홈페이지 참여 열기 후끈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진정욱 종합홍보태스크포스팀장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토킹 부스에서 수집된 동영상이 1천3백여 건이나 되고, 기념사진 촬영 건수가 7백50여 건일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면서 “이들 동영상이나 문자메시지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세계 각국 정상들이나 전문가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 모두에게 친근한 축제로 다가가게 하는 데는 ‘소통’을 주제로 한 홍보가 한몫하고 있다. ‘G20 정상들에게 말하세요’ 캠페인 역시 우리 국민이 세계 정상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진 팀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박지성 선수와 김연아 선수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응원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수집될 약 1만 건(추정)의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를 각국 대사관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소통 및 홍보창구도 잇따라 개설됐다. 10월 2일부터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개설한 ‘서울 G20 특별 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대학생, 주부 등으로 구성된 민간 홍보요원 ‘청사초롱 e-리포터’들은 각자의 블로그뿐 아니라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유튜브, 플리커 등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자신들이 작성한 현장 르포, 사진, 동영상, 카툰 등의 콘텐츠를 옮기며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와 배너 올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알리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 ‘내가 대한민국 외교사절’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게시판에 국민 응원 메시지 달기,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홍보 배너 달기의 두 가지 이벤트로 구성된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다음과 공동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 중인 국민 응원 메시지 달기 이벤트 게시판에는 10월 8일 현재까지 3천8백61명이 참여해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올렸다.

포털사이트에 온라인 소통 및 홍보창구 잇따라 개설

또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문구를 넣은 배너 달기 이벤트에는 10월 8일 현재까지 8백10명이 참여했다. 아이디 ‘재훈맘’ ‘티파니’ 등 참가자들은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배너를 달아 블로그 이웃들이나 카페 가입 회원들에게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알리고 있다.

학생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주제로 한 모의 정상회의나 논술대회에 참가해 간접 홍보에 나서고 있다.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희대 등 7개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 G20 모의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10월 3일 서울, 대전, 대구에서 열린 ‘전국 고등학생 G20 주제 논술대회’에는 5백19명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언론사들도 공조체제를 마련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KBS), 주관통신사인 연합뉴스는 D-1백 일을 계기로 관련 프로그램과 기사를 특집으로 내보내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G20 정상에게 말하세요 캠페인 g20talking.com
내가 대한민국 외교사절 캠페인 eventdaum.daum.net/ribbonevent_20100915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seoulsummit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트위터 twitter.com/#!/seoulsummit



동아DB

9월 13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청사초롱 e-리포터' 발대식에서 청사초롱 온라인 활동을 형상화한 대형 도미노 퍼포먼스와 함께 청사초롱 e-리포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청사초롱 e-리포터는 온라인 통신원과 명예기자로 나눠어 G20 정상회의를 취재하고 블로그와 트위터, 유튜브 등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따뜻한 코리아' 국민 모두 팔 걷고 나선다

외국인 위한 지하철 버스 탑승·노선 안내 등 자원봉사 물결

**국민 모두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격을 높이는 의미 있는 행사이다 보니 누구도 주저함이 없다. '따뜻한 코리아'의 진한 감동이 벌써부터 느껴진다.**

지난 10월 12일 서울 논현동에 자리한 문화센터. 3백명 넘는 사람들이 들뜬 모습으로 한 강의실에 모였다. 강의가 시작되자 사뭇 진지한 표정들로 바뀌었다. 이날 교육을 위해 모인 이들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뽑은 행사지원요원들. 무려 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6백17명의 요원이 선발됐다.

이화여대 국제학부 3학년 유미종(22) 씨는 "평소 국제행사에 관심이 많았다. 의미 있는 행사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생각에서 지원하게 됐다.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 또래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이나 직장인도 많았다.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국격(國格)을 높이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뜨겁다. 청와대 국민여론 조사결과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54.8퍼센트였다. 자부심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봉사에 직접 나서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사람도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열기도 대단하다. 서울시 G20 정상회의 지원단만 해도 당초 2천6백여 명을 뽑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1만2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바람에 총 5천5백여 명으로 정원을 늘렸다.

자원봉사단 '따뜻하고 친절한 서울' 알리기에 적극 노력

서울시 자원봉사단은 G20 정상회의 참가자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서울'을 알리는 데 직접 나서게 된다. 외국인을 위해 지하철 탑승 안내, 승차권 교부, 버스 탑승과 노선 안내부터 숙소, 관광지, 의료기관 안내 등이 봉사단의 주요 활동이다.

이들은 G20 정상회의가 어떤 행사인지에 대한 기초교육부터 친절교육,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 및 안전교육 등을 받았다. 선발된 봉사자들은 10월 중순 업무를 배치받고 행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 자원봉사단 중 최고령인 정기식(80) 씨의 경우 인터넷에서 그 사연이 유명해졌다. 일본에서 자라 일본어에 능통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외국 경험을 쌓은 덕분에 외국어만큼은 자신 있다는 그의 사연이 다른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뷰어로 나선 김미연(38) 씨는 청사초롱 e-리포터 중 유일한 주부 리포터다. 김 씨는 서울시 자원봉사단 교육도 받은 열혈 봉사자다. 그는 교육 중 알게 된 정 씨의 사연을 듣고 직접 취재에 나섰다. 청사초롱 e-리포터는 1백명으로 구성된 G20 온라인 홍보요원들이다.

G20 회의장에는 의전 지원·행사 진행요원 배치

9월 발대식을 가진 법사랑 자원봉사단도 국가 이미지의 기초가 되는 공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농협중앙회, 손해보험협회, 법질서시민네트워크 등 그동안 법무부와 함께 법질서 캠페인을 전개해온 10여 개 민간단체 회원들은 기초질서 현장 캠페인 전개, 교통·관광 안내, 사이버 자원봉사 등을 지원한다.

지난여름 G20 대학생 홍보대사 격인 'G20 영앰버서더'가 20개 참가국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했다면, 바통을 이어받은 청사초롱 e-리포터들은 본격적인 G20 정상회의 준비사항을 비롯한 행사 이모저모를 알린다.

리포터들은 미디어센터 취재, 해외언론 모니터링을 하고, 온라인 통신원들은 각각 유튜브, 플리커, 미투데이,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G20 정상회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현장에는 의전 지원요원과 행사 진행요원들이 배치된다. 의전 지원요원은 각국 대표단의 방한 일정을 조정하고 각국 정상 부부들의 모든 일정을 수행하는 의전연락관(DLO·Delegation Liaison Officers)을 돕는 임무를 한다. 3차 심사를 모두 통과한 57명 중에는 면접을 위해 일부러 미국, 프랑스 등에서 일시 귀국한 사람도 있다.

기본 소양교육을 받은 행사 지원요원들은 직무 배치에 앞서 한층 고무돼 있다. 이들은 1, 2주 안으로 취재단 지원, 공항 수속 지원, 숙소 안내, 회의장 주차관리 등에 고루 배치된다. 각 직무별로 교육을 따로 받은 뒤 11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행사 지원요원들을 교육한 G20 준비위원회 김재용 행사지원과장은 "교육을 받으러 온 행사 진행요원은 이러한 국제행사 경험을 토대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러한 경험이 나중에 다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G 글·정고은 객원기자

유장희 BBB KOREA 회장

"통역 서비스 1588-5644로 전화를"



BBB(Bofore Babel Brigade·휴대전화를 통한 언어·문화 봉사단)는 2002 한일월드컵 당시 방한 외국인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BBB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시민운동이다. BBB는 월드컵 경기 전후로 2만5천 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리에 활동을 마친 뒤 한국BBB운동으로 출범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BB KOREA의 통역 서비스는 한국의 독자적인 통역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간 언어소통이 필요할 때 BBB 대표번호인 1588-5644로 전화하면 ARS 안내에 따라 17개 언어 중 선택한 언어의 봉사자 휴대전화로 연결돼 통화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전 세계 언어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24시간 열어놓고 통역봉사를 수행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통역 서비스 제공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BBB에는 현재 3천7백여 명이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은퇴 외교관, 전·현직 대학교수, 대학생, 직장인, 주부, 60대 이상 고령자,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 등 다양합니다. 특히 홍대식 봉사자는 87세의 고령임에도 열정적으로 일어 봉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티마이투 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으로 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다른 이주여성들을 상담하면서 봉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인 크리스티나(이탈리아)를 비롯한 마리연(독일), 투이(베트남), 팽려영(중국), 제이슨(홍콩) 등 KBS 〈미녀들의 수다〉 출연진 6명이 BBB 홍보대사와 함께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이나 VIP 외국인 등에게 BBB KOREA의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 G20 정상회의엔 각국 수장이나 VIP 외국인 및 해외 기자와 시민단체, 일반인 등 총 2만여 명의 외국인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개인 통역관이 없어 교통, 숙박, 식사, 쇼핑, 관광 등에서 언어에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비영어권 외국인의 경우 그 불편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BBB를 이용하면 17개 언어로 무료 통역을 받을 수 있어 언어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BBB KOREA ☎ 1588-5644



조정희 기자

지난 1월 개장한 청와대 사랑채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인기 코스 중 하나다. 특히 2층에 위치한 G20 정상회의 휴게실은 행사 한 달여를 앞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세계인이 즐기는 '대~한민국'

G20 정상회의 개최로 한국 찾는 외국인 발길 이어져

11월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 한 달을 앞두고 세계인들의 관심은 우리나라로 쏠리고 있다. G20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알고자 하는 세계인들의 발걸음을 뒤쫓았다.

10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에는 많은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한결같이 청와대 사랑채로 향했다. 문을 연 지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사랑채는 이미 내외국인에게 사랑받는 관광명소로 꼽힌다. 하루 평균 2천여 명이 방문하고,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는다.

청와대 사랑채에 마련된 대한민국관, 대통령관 등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전통공예 시연 등 문화체험까지 가능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관심 깊게 둘러보는 장소는 청와대 사랑채 2층에 마련된 G20 정상회의 휴게실이다. 이곳은 서울 G20 정상회의 유치를 기념해 G20 정상회의장의 축소판으로 꾸며졌다.

청와대 사랑채,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인기몰이

이날 G20 정상회의 휴게실에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정을 연수받는 10여 명의 온두라스 정보통신 관련 고위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9월 30일 한국에 도착한 뒤 처음 관광에 나섰다는 이들은 G20 정상회의 휴게실 벽면의 G20 관련 사진과 글들을 꼼꼼히 읽어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웬세스라오 토바르 로페스(42) 씨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

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며 "질서, 발전, 혁신, 기술 등의 키워드에 강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가 협력하는 상생의 룰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프레도 케기(33) 씨는 "G20 회원국이자 의장국인 대한민국처럼 하루 빨리 온두라스도 G21에 가입해 세계경제를 이끌어갔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점점 늘고 있다. 올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한국방문의 해' 첫해로 금년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인 8백50만명 중 6백47만명(9월 30일 기준)이 이미 입국해 전년 대비 12퍼센트 성장이 가능해지고, 연말까지는 지난해 입국한 외래 관광객 7백81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 우리나라 매력 알리는 일등공신

이 같은 결과는 서울 G20 정상회의로 각종 국제회의가 연계되면서 MICE관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MICE관광은 Meeting(국제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회)의 약자로 관광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약 30개국의 정상과 수행원, 언론인을 포함해 1만명 이상의 해외 유력인사가 방문해 국내 MICE산업의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월 11일부터 3일간 충남 부여군에서는 G20 참가국 관광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T20 관광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선 경제회복과 관광 발전을 위한 국제 의제 형성방안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백제의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부여에서 회의가 열려 세계대백제전을 소개하는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농어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충북 단양군 가곡면에 위치한 한드미마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옥수수를 수확하는 모습.

이렇듯 G20 개최국인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는 일등공신이다.

문화관광 붐을 주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청이 시작한 '한스타일 문화체험'. 한옥 홈스테이, 한복 입기, 한식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1박2일 정도의 짧은 시간에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로 잠시 들른 외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지난 8월부터 농어촌 글로벌화 Rural-20 프로젝트에서 선정한 농어촌 체험마을에 외국인 농어촌 일손돕기 체험단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농촌 풍경을 즐기고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주 20명의 참가자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관련 회의로 서울과 지방을 찾는 세계 각국 참가자들을 위한 맞춤형 투어를 선보였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현재 한스타일 문화체험, G20 맞춤형 투어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 알리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투어는 일반적인 관광투어와 달리 한국을 짧은 시간 동안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멋을 최대한 체험해볼 수 있도록 반일, 전일 등 34개 코스를 개발한 것이 특징이며, 이번에 약 1만5천명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름방학 동안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G20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인 트루키 알파게(24) 씨와 멕시코인 아드리안 알베르토(22) 씨는 "G20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세계인 누구나 와서 즐기고 싶은 나라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비 장학생으로 서울 산업대에서 공부하는 알파게 씨는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에 와보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 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한다면 더욱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초부터 고려대 교환학생으로 온 알베르토 씨는 "세계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본래 한국이 갖고 있는 탁월한 위기대처 능력과 높은 문화적 수준 때문"이라며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들이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개발연구원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가 당면한 세계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안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조정위원회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G20 정상회의, 역사에 새 場 열 것"

학계·언론 등 "신흥국 첫 번째 개최 기대 크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세계의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첫 번째 신흥국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제시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의제는 세계경제의 당면 과제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첫 번째 신흥국이다. 세계경제의 수동적 추종자에서 능동적인 어젠다 주도국이 된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초대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을 역임한 폴 마틴 전 캐나다 총리는 "유럽과 북미권이 아닌 지역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서울이 처음"이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마틴 전 총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를 주도적으로 의제로 상정하는 등 한국의 리더십은 G20 무대에서 처음부터 두드러졌다"며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G20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 수석 논설위원도 "한국이 신흥국으로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것은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세계지형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매우 적절하고 상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울프 논설위원은 9월 3일 서울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금융개혁회의 기조연설에서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체결,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배분 등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위한 보험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위기 예방과 경제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G20 핵심 의제, 한국 정부의 리더십 따를 것"

우리나라는 재정·금융·환율 등 경제정책 전반의 국제공조,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기존 G20 의제 외에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개발 이슈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동아DB

이 같은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 대해 세계 각국 인사들은 공감을 나타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지난 7월 1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MF와 기획재정부 주최 'IMF-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경제 공조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며 "G20 핵심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장국인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존 립스키 IMF 수석 부총재도 7월 27일 한미경제연구소 행사에서 'G20 어젠다 : 서울에 대한 기대(The G20 Agenda : Looking to Seoul)'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한국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강한 열정과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11월에 개최될 서울 G20 정상회의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넘어 효과적인 국제 공조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가기 위한 나라별 정책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은 각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종합적인 행동계획을 도출해내야 하는 어렵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규제체제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외협력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며 "IMF 쿼터 개혁 등은 합의 도출이 어려운 만큼 큰 성과로 인정받을 것이며, 신흥국과의 협력강화 등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국가수반 70여 명의 모임인 마드리드클럽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의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빔 콕 마드리드클럽 회장은 9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마드리드클럽 서울원로정상회의 폐막 후 "서울 G20 정상회의는 G7이 아닌 국가가 의장국이 되는 첫 G20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기대가 크다"며 "개발 의제와 함께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개발도상국 의결권 확대 같은 개혁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발 의제를 채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반 총장은 9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G20가 긴급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기후변화, 개발과 같은 의제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개발 의제를 채택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며 유엔 회원국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한국의 경험을 세계가 경청할 기회"

9월 15일 한·아프리카 장관급 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도널드 카베루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겠다고 해서 고맙다"면서 "G20가 이제 빈곤층을 포용하려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프리카 대표단이 아프리카 빈곤 퇴치 등을 위해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요청해 G20 개발 이슈에 아프리카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사 홀 핀들리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은 9월 9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은 수많은 나라에 귀감이 되고 있다"며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한국의 경험을 세계가 경청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미래학자 해미시 맥레이도 7월 1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자체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라며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의 기대는 크다. 이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다. G

글 · 이혜련 기자

“환경은 생명이요 지킴은 사명”

문화·예술·체육계 인사 33명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단’ 발대식

문화체육인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10월 7일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단 발족과 동시에 환경부 환경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들은 국토탐사, 수질측정 등 다각적인 환경보전 활동과 환경정화 캠페인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10월 7일 한강 뚝섬공원 수변무대에서 열린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단 발대식.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단이 이만의 환경부 장관(오른쪽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과 함께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있다.

한여름 날씨처럼 후텁지근하던 10월 7일 오전 10시, 사방이 탁 트인 한강 뚝섬공원 수변무대로 낯익은 얼굴들이 모여들었다. 같은 초록색 점퍼 차림에 친절하게 이름표까지 달고 나타난 이들은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단 멤버들이었다.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단(이하 환경지킴이단)은 문화·예술·체육계 인사 33명이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사회봉사단체. 방송인인 이준훈 단장을 비롯해 아나운서 김병찬, 국악인 김영임, 가수 김상희 송대관 인순이 현숙 박상민, 탤런트 김영배 김정균 김형일 서인석 송경철 이정용 이종수 이종원 윤용현 현석, 개그맨 김병만 심현섭, 만화가 박광수, 체육인 김수녕 김영호 남현희 심권호 이배영 이원희 엄홍길 여홍철 유남규 정재현 차동민 현정화 씨가 환경지킴이로 참여하고 있다.

이준훈 단장은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전 지구적 환경재앙에 대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33명의 문화체육인이 뜻을 모았다”며 “전국의 산과 강, 국토를 지키기 위한 환경정화 캠페인과 수질측정 등 다양한 탐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경지킴이단은 환경부, 민간단체, 대학생, 시민 등 각계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인석 씨는 개회사에서 “후대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시대의 커다란 숙제가 됐다. 이제 국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문화체육인들이 앞장서 국민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보전 중요성 알리며 또 다른 한류 붐 일으키길”

이어 연단에 오른 김상희 씨는 “어제 헝가리에서 폐수저장탱크가 터져 슬러지가 독일의 3개 주를 뒤엎는 참사가 있었다. 우리 강둑 밑에 산업폐기물들이 매장돼 있다는 보도도 접했다. 환경파괴로 발생하는 재앙이 언제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위협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환경지킴이단은 좀 더 많은 국민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대식에는 33명 중 18명이 참석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산악인 엄홍길, 탤런트 이종원 씨는 영상메시지로 대신했다. 이종원 씨는 ‘환경은 생명이요, 지킴은 사명이다’라는 명언으로 좌중을 감동시켰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들 환경지킴이에게 환경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친근한 벗인 문화예술인들은 한류 열풍



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된 국토물환경탐사대가 경기 남양주시 한강공원 팔당지구를 찾아 강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담고 있다.

을 일으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을 활성화한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라며 "수십 년 전 벌거숭이였던 우리 산들에 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꿔 푸른 숲으로 거듭난 것처럼 수질 오염과 물 부족으로 신음하는 우리 강들도 건강한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환경지킴이단이 환경홍보대사로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또 다른 한류 붐을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지킴이들은 쓰레기를 줍고, 화학세제 사용을 줄이는 생활 속의 작은 노력도 솔선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박광수 씨는 카툰, 박상민 씨는 콘서트, 심현섭 씨는 현재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등 자신의 활동무대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18명 환경지킴이 거리행진… 탄소포인트제 홍보

18명의 환경지킴이는 발대식을 마치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환경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다.

탤런트 이정용 씨는 이날 출범한 국토물환경탐사대와 함께 경기 남양주시 한강공원 팔당지구로 자리를 옮겨 강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변정화 활동도 벌였다.

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된 국토물환경탐사대가 4개 조로 나눠 가져간 자루들은 10여분 만에 가득 채워졌다. 탐사대원들은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수변공원이 비닐봉지, 휴지, 스티로폼, 신발 등 온갖 쓰레기로 더럽혀진 것을 보고 저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또 양평군 강하면 운신리에 자리한 강하수처리장과 한강생태학습장을 방문해 오염된 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살폈다.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를 찾아 한강살리기 홍보관과 강천보도 견학했다.

국토물환경탐사대의 일원인 황교신(한경대 경영학과 4년) 씨는 "인공적 정화를 하는 데만 이틀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 절약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이번 탐사는 수질개선과 환경정화에 목적을 둔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출신인 조재은(이화여대 환경공학과 4년) 씨도 "낙동강 물이 말라 오염된 현장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4대강살리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탐사가 많은 공부가 됐다"고 했다.

그는 "물환경과 수질개선에 관심이 많아 강하수처리장과 한강생태학습장 탐방이 흥미로웠다"며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정화에 그치지 않고 수생식물과 모래, 자갈 등을 이용해 자연정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개개인의 실천이 환경 살리기의 시작"

서인석·현석·김수녕 씨 등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의 환경사랑

"말보다는 행동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겠다." 10월 7일 환경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단의 각오다. 탤런트 서인석, 현석, 양궁스타 김수녕 씨 등 평소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녹색생활을 실천해온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들을 만나 지극한 환경사랑에 대해 들었다.

서인석
"환경지킴이로서 녹색생활 실천 적극 알리겠다"



송경철
"둔치 따라 휴지통 설치한다면 하천오염 예방되지 않을까…"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환경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환경 살리기는 곧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지구 환경이 계속 오염되면 인류가 설 땅이 없어질 테니까요."

탤런트 서인석 씨는 환경 이야기를 꺼내자 목청을 높였다. 그는 "예전에는 한강에서 수영도 했는데 지금은 무분별한 개발로 수질이 악화돼 그럴 수 없게 됐다. 지금은 수돗물도 못 미더워 생수를 사먹어야 하는 세상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환경지킴이로서 앞으로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개인의 녹색생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늬만 환경지킴이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근검절약을 철칙처럼 여겨온 그는 전기, 수돗물 등을 아껴 쓰는 일에도 열심이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 같은 녹색생활을 실천하게 하고 있다.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반드시 뽑고, 밥과 반찬도 먹을 만큼만 하게 해요. 과식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음식물을 남기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되잖아요."

요즘 SBS 특별기획드라마 〈자이언트〉에서 개성 있는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탤런트 송경철 씨도 환경에 관심이 많다. 특히 하천과 바닷속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1970년대에 스킨스쿠버를 배우기 시작해 지금까지 즐기고 있다는 그는 "우리나라 강이나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물이 탁하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고기가 잘 잡힌다고 소문난 곳에는 물속이 낚싯줄 천지"라고 전했다.

"요리할 때도, 집안일 할 때도 늘 환경 생각"

"지난해 남해로 스킨스쿠버를 하러 갔을 때도 낚싯줄과 그물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무척 위험했어요. 그래서 스킨스쿠버를 할 때는 꼭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낚싯줄이나 그물을 수거해 가지고 나와요."

하천오염은 더욱 심각해 돌덩이에 걸려 끊어진 낚싯줄,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비닐봉지, 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휴지 더미를 보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는 하천오염을 막는 방법으로 둔치를 따라 휴지통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강변에 둔치와 자전거 길을 조성하면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 미관을 해치지 않는 예쁜 휴지통을 많이 설치해 강물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초콜릿 근육으로 유명한 '몸짱' 탤런트 이정용 씨는 주로 가정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한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유기

농 세제 사용과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 하수구에 오물 버리지 않기, TV나 컴퓨터 사용 후 플러그 빼기 등도 삶의 일부가 됐다. 그가 이처럼 녹색생활을 실천하게 된 데는 아내의 영향이 컸다.

"요리를 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늘 환경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환경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요. 그런 아내를 보며 저도 모르게 녹색생활에 매료됐죠."

"강과 하천 되살리는 4대강살리기 사업 잘되길"

등산 마니아인 탤런트 현석 씨는 산을 탈 때마다 맨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눈에 띄는 오물은 모두 주워온다. 식사를 할 때도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겉으로는 "워낙 식성이 좋아서"라고 에둘러 말했지만 실은 환경오염의 원인인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다.

"제가 자연을 참 좋아해서 산이나 강을 자주 찾아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자연을 아낀다면 꼭 그대로 둘 게 아니라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자연을 그대로 두는 건 보호가 아니라 방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년 전에 낙동강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강변이 쓰레기로 오염돼 심한 악취를 풍겼어요. 강바닥이 제방 너머 논보다 높아서 물이 조금만 불어도 범람하니까 양수기로 퍼내야 하고, 겨울이면 강물이 잘 가물어 흐르지 못하고 바닥에 고인 물이 썩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악취와 오염에 시달리는 그런 강과 하천을 되살리는 일이니 찬성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양궁스타 김수녕 씨도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4대강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살리겠다는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 만큼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보였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가정의 주부로, 경희대 대학원에서 산업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이번에 새로 얻은 '환경지킴이' 타이틀이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온다.

"기분 좋은 책임감을 안겨주던데요. 나름대로 쓰레기 분리수거도 철저히 하고, 쓸 수 있는 물건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애쓰는데 앞으로는 좀 더 친환경적인 생활을 해야겠구나 싶어요. 에너지를 아끼고 낭비를 줄이는 개개인의 실천이 바로 환경 살리기의 시작이니까요."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이정용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환경 지켜야죠"





현석

"더럽혀지는 자연 그대로 두는 건 보호가 아닌 방치"

김수녕

"에너지 아끼고 낭비 줄이는 게 환경 살리기의 첫걸음"







삼성전자 해외 법인은 현지 극빈지역 학교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초 그 혜택을 입은 터키 어린이들이 밝게 웃고 있다.

삼성그룹

소외계층에게 꿈·희망을 쏘다

대기업 나눔경영으로 '계층·국경 없는 사랑 실천'

국내 대기업들이 '계층, 국경 없는 사랑의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겉포장용 '쇼'가 아니다. 상생을 위한 인간 본연의 감성 발현이다. 따뜻한 사회를 위해 나눔의 문화를 생성하는 선순환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나눔경영 현장을 소개한다.

SAMSUNG '희망+네트워크' 사업 통해 나눔경영 실천

초등학교 5학년인 미영(가명·12) 양과 가족(어머니, 남동생)은 지난해 세상을 뜬 아버지의 음주, 폭력 습관 때문에 가슴 한쪽에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 지난해 6월 삼성그룹이 지원 중인 희망신림센터가 미영이 가족에 대한 상담에 나섰다. 삼성그룹이 사회복지사를 미영이 가족에게 보내 미영이가 밝게 웃는 아이로 커가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선 것이다.

가족여행을 보내주고 미영이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상담사를 소개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내 공부방과 보습학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영이 어머니는 비슷한 처지의 모임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미영이 가족 사례는 삼성그룹이 지난해부터 펼치고 있는 '희망+네트워크' 사업 중 하나다. 삼성그룹은 희망신림센터 같은 공간을 전국 11곳에 두고 미영이 같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옛 동사무소 건물 등을 지역아동센터로 리모델링하는 '희망공간' 사업도 '희망+네트워크' 사업 중 일부다. 이는 지역 내 저소득층 어린이 보호를 위한 활동이다. 삼성그룹은 지금까지 40여 곳의 희망공간을 마련했다.

450여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지원

삼성그룹은 전국 4백50여 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도 지원하고 있다. 공부방 시설 개·보수와 교육자재 제공, 지역 내 우수 프로그램 발굴 등이 대표적 활동이다.

삼성그룹 사회봉사단 최석진 부장은 "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임직원들의 여러 사회봉사활동 가운데서도 소외아동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LG 사랑의 다문화학교' 과학 인재 양성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로켓 모형을 자랑하고 있다. LG그룹

삼성화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등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화재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1건마다 5백원씩 기부해 기금을 모으는 '5백원의 희망선물'은 장애인 가정을 돕는 일이다. 이 기금은 주방, 화장실, 세면대, 어린이공부방 등 불편한 내부 시설을 장애인 거주자 맞춤형으로 고쳐주는 데 쓰인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답게 전 세계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 실제 지난 7월 말 삼성전자 임직원 게시판에는 '여름 휴가 기간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이 올라왔다. 신청자는 6백50명으로 경쟁률이 30 대 1을 넘었다. 이들은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세네갈의 응곰곰 초등학교에서 화장실과 식수대를 만들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또 학교 내에 40여 그루의 망고나무를 심었다. 라디야 시락 학교에는 컴퓨터교육장을 설치해줬고 교사와 지역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도 실시했다. 함께 간 강북삼성병원 의료단은 4백여 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봉사활동을 위해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 9개 해외총괄을 두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중국 쓰촨(四川)성 난충(南充)시의 린장(臨江)소학교에서 1백 번째 삼성애니콜 희망소학교 기공식을 열었고, 유럽에서는 유방암 퇴치 캠페인을 후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글 · 호경업(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LG "가난하다고 꿈 포기 마세요"

최근 LG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은 경기 파주시 파주보육원을 찾았다. 이곳에 설치된 'IT룸'에서 아이들에게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 대비 등 IT 분야 교육을 하기 위해서였다. LG디스플레이 이방수 상무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첨단 IT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사회보육시설 내 여유공간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와 시청각 학습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춘 첨단 IT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2008년 11월 경북 김천시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1호점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파주보육원, 경북 성주군 실로암 육아원 등 국내 8곳, 폴란드 현지법인과 연계한 돌르노 실롱스키 주립도서관 1곳 등 모두 9곳을 운영 중이다.

LG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쏟는다. 현재 LG계열사에서 저소득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만 15개다. 그중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LG 사랑의 다문화학교'가 대표적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문화가정 자녀 후원하는 '희망 멘터링' 시행

중국어, 베트남어 등 이중언어와 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70명을 선발해 한국외국어대와 KAIST 교수진이 지도하는 교육을 2년 동안 무료로 지원한다. 현재 필리핀, 몽골, 네덜란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0여 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LG이노텍도 올해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인 '희망 멘터링'을 시작했다. 임직원 멘터와 다문화가정 자녀가 1 대 1로 만나 가족, 친구, 학교생활, 진로 고민 등에 대한 멘터링을 진행한다. 전문 코칭과정을 이수한 10명의 임원이 코치로 나섰다. 이들은 6개월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희망 멘터링을 실시한다. 기간이 끝나면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들 가운데 우수 멘티 5명을 선발해 부모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삼성, LG, 현대·기아차, KT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이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소외계층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돕는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다. 'LG 사랑의 음악학교'는 지난해 3월부터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를 향해 꿈을 키워나가는 음악영재를 발굴해 국내외 유수 교수진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년 음악영재 15명을 뽑아 2년 동안 실내악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세계적인 실내악 단체인 뉴욕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소속 음악가들과 국내 유수의 교수진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확 바꿔주는 사업도 여러 계열사가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이 직접 나서 저소득가정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개·보수 작업을 벌이는 '희망 가득한 교실 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열사별로 가장 잘할 수 있는 특기를 앞세워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헌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김현진(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HYUNDAI KIA MOTORS "네 바퀴에 사랑을 싣습니다"

9백60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차사순 할머니, 장애를 딛고 서로를 챙기는 복지단체 승가원의 태호와 성일이는 지난 9월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7월부터 자동차 기증 캠페인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통해 차가 필요한 이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한 달 동안 블로그 댓글이 하루에 1백 개 이상 쌓이면 차를 선물하고 있다.

1차 캠페인 기간 동안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는 46만명을 기록했고, 댓글은 하루 평균 6백 개 이상 달리는 등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10월부터 시작된 2차 캠페인의 주인공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예은이,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 등이다.

현대·기아차는 2003년부터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구호 아래 '이동 편의 증진사업'을 주요 사회공헌활동으로 삼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들이 대상이다. 일반인들이 누리는 이동 편의성을 교통 약자에게로 넓히겠다는 취지에서다.

장애인 · 어린이에게 균등한 이동 편의성 제공

현대차가 2006년 선보인 승합차 '스타렉스 이지무브'는 이전까지 수입차 위주였던 장애인용 차량의 국산화를 시도한 차량이다. 현대차는 이 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력을 다른 차종에도 응용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초(超)저상 시내버스는 출입문 높이를 낮춰 휠체어를 탄 채로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교통안전체험관 '키즈오토파크'를 설립했다. 연간 1만2천명이 찾을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이다.

2005년부터는 교통사고 유자녀와 현대차 임직원 간 결연을 통해 소원을 들어주는 '세잎클로버 찾기'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이상의 후유증을 갖게 된 18세 이하 유소년들을 지원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9월 경기도와 함께 장애인 보조 및 재활기구 전문 사회적기업 '이지무브' 창립 개소식을 가졌다. 현대·기아차는 이 기업에 3년간 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장애인 차량의 탑승 보조기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2012년까지 연간 1백8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

현대·기아차는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자동차 기증 캠페인을 통해 차가 절실하게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복지법인 등에 차를 선물하고 있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차를 선물받은 복지단체 승가원의 태호(왼쪽 사진 앞)·성일 군과 9백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딴 차사순 할머니.





현대·기아차


KT

KT는 청각장애인들이 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소리 찾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9월 7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귀의 날' 기념행사에서 방문객들이 귀 모형을 만들어보고 있다.

애인 고용도 늘릴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함께 움직이는 세상' 사업에 사회복지단체를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다. 10월 18일까지 장애인과 노인, 아동·청소년 등 3개 사회복지 분야 단체가 제출한 사업 아이디어를 평가해 총 40개 단체를 선발하고, 내년 한 해 동안 최대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현대·기아차 노진석 상무는 "국내 기업의 사회참여가 단순 기부에서 참여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사회복지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이진석(조선경제i 기자)

olleh kt "되찾은 청력으로 아름다운 소리 들어요"

KT는 2003년부터 청각장애인들이 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리 찾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인공와우 이식수술 1백19명, 디지털 보청기 제공 1백61명 등 모두 2백80여 명을 지원했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청(聽)신경을 자극하는 와우(달팽이관)가 심각하게 손상돼 사실상 청력을 잃은 환자에게 인공와우를 이식해주는 수술이다. 수술비는 약 5백만원이 든다. KT는 이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술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인공와우 이식이 불가능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뇌간 이식수술도 제공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해당 수술 지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뇌간 이식수술은 청신경에 자극을 주는 인공와우 수술과는 달리 환자의 뇌에서 소리를 담당하는 뇌간에 직접 전기 자극을 줘 들을 수 있게 하는 수술. 귀 내부가 기형이거나 청신경 자체에 이상이 생겨 인공와우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에겐 반가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KT는 올해 소리 찾기 활동으로 뇌간 이식수술 3명, 인공와우 이식수술 6명, 디지털 보청기 제공 10명 등 19명의 수혜자를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수술비와 함께 2년간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소리 찾기를 통해 청력을 회복한 수혜자들을 위한 문화공연 관람 행사도 지난해부터 열고 있다. 되찾은 청력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에는 1백40명을 초청해 오페라 〈토스카〉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공연했으며, 올해 4월에는 1백여 명을 초청해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공연했다.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수술비 지원

KT의 소닉붐 프로농구단은 '맑은소리캠페인'을 통해 기금을 모아 팀 연고지인 부산지역의 청각장애아동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청각장애아동을 돕는 '소리 찾기 장학금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05년부터는 'KT 공부방'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역 공부방에 개인용 컴퓨터(PC)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KT 석호익 부회장은 "올해는 뇌간 이식수술 등 소리 찾기 사업 지원영역이 확대된 만큼 대상자 선발 범위도 다문화가정 청각장애아동 등으로까지 넓힐 것"이라며 "KT는 커뮤니케이션 대표 사업자로서 더 많은 사람이 소리를 통해 세상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소리 찾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 글 · 장상진(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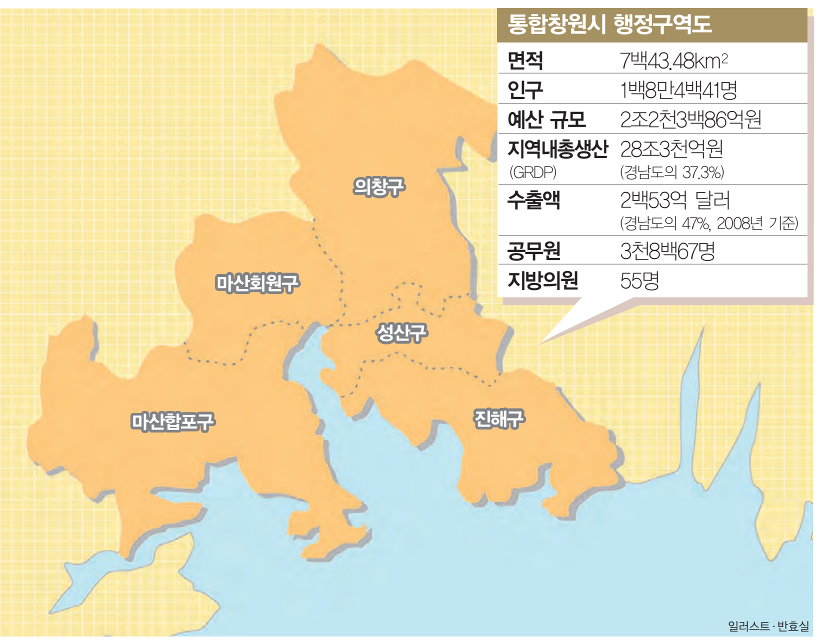


통합창원시는 동아시아의 첨단산업 및 해양관광산업의 허브를 꿈꾸고 있다. 사진은 통합창원시청이 자리 잡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전경.

통합창원시, 글로벌 메타시티로 거듭난다

창원·마산·진해시 통합한 '통합창원시' 6백 년 만의 행정구역 복원

지난 7월 1일 출범한 대한민국 자율 통합도시 1호 통합창원시가 10월 8일로 출범 1백 일을 맞았다. 통합창원시 발전의 키워드는 창원·마산·진해시 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발전'이다. 첨단 연구개발단지와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해 국경을 초월한 동아시아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통합창원시의 현황과 비전을 살폈다.



통합창원시 행정구역도

면적	7백43.48km²
인구	1백8만4백41명
예산 규모	2조2천3백86억원
지역내총생산 (GRDP)	28조3천억원 (경남도의 37.3%)
수출액	2백53억 달러 (경남도의 47%, 2008년 기준)
공무원	3천8백67명
지방의원	55명

경남의 창원·마산·진해시 3개 지역 통합에 따라 지난 7월 1일 탄생한 통합창원시가 '매머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통합창원시는 '국내 최대 단일 기초지자체, 동아시아의 새로운 메타시티, 1백8만 창조적 명품도시'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자율 통합도시 1호인 통합창원시의 인구는 1백8만여 명으로 전국 8위 규모이며, 면적만 해도 서울시(6백5.25제곱킬로미터)보다 큰 7백43.48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특히 산업경쟁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28조3천억원(2008년)으로 전국 5위다. 이는 광역시인 광주, 대전을 능가한다.

통합창원시를 통한 세 도시의 통합은 행정구역상 6백 년 만의 복원이다. 1408년 조선 태종은 창원과 마산, 진해 지역을 아우르는 창원부를 만들었다. 이때 지금의 창원이라는 이름

이 처음 사용됐다. 이처럼 창원부는 한 뿌리였다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분리됐는데, 이번에 대통합을 이룬 것이다.

대통합은 단순히 옛 행정구역의 복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합창원시는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국내 첫 자율통합의 예로, 어떤 모델로 자리 잡느냐에 따라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잣대가 될 수 있다.

통합창원시는 출범과 함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역특화발전 모델'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역특화발전의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통합시의 중심에 위치한 산업 메카인 옛 창원지역, 문화와 역사의 그릇인 서부의 마산지역, 해양물류관광의 중심인 동부의 진해지역에 대한 산업경제 발전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마산지역은 마산항을 중심으로 한 워터프런트항 개발로 친수공간을 확보해 '한국의 시드니'로 만든다. 진해지역은 부산신항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대규모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해 해양관광 물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기존 창원지역은 한국 제조업의 요람인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연구개발(R&D) 과학단지로 바꾸고 인재육성센터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다.

2014년까지 3천억원 투자 '3無4强' 서민복지정책 시행

통합창원시는 주변국 도시들과 연계하는 글로벌 메타시티(Metacity·생활권역이 도시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도시)도 꿈꾸고 있다. 부산과 연계해 신항만, 녹산국가산업단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면 통합창원시는 동남권 광역경제권의 한 축으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메타시티로 거듭날 수 있다.

즉,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업과 문화,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통합창원시를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슈와 이어지는 동북아시아권의 새로운 메타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 창원시는 통합이 되면서 소폭이지만 인구가 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서울·수도권과 달리 상승세를 타고 있다. 창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통합 후 2천 개를 넘어섰다.

통합창원시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세 지역 시민들의 정서적 통합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시민 대표들을 참여시킨 '화합과 균형발전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통합에 힘쓰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합창원시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 전체 시 예산의 15퍼센트인 3천억원을 투자할 서민복지정책의 핵심은 '3무(無)4강(强)'. 3무는 농어촌 무상급식 등으로 밥 굶는 사람이 없고, 서민아파트 건립으로 집 없는 사람이 없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를 지원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며 4강은 노인, 장애인, 보육·여성, 의료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공표됨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의 골자는 통합 지자체와 대도시에 대한 특례조항 등 25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통합창원시의 경우 재정 인센티브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등 교부세 지원만 향후 최소 1천9백52억원에서 최대 5천5백52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인구 1백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부시장 2명과 5급 이하 정원 책정권을 비롯해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까지 건축물 허가,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농지전용 허가 신청 등 각종 행정특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 28일 열린 '창원 발전포럼'에서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인센티브 등 통합시 특례를 처음 받게 된 통합창원시가 시정을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 향후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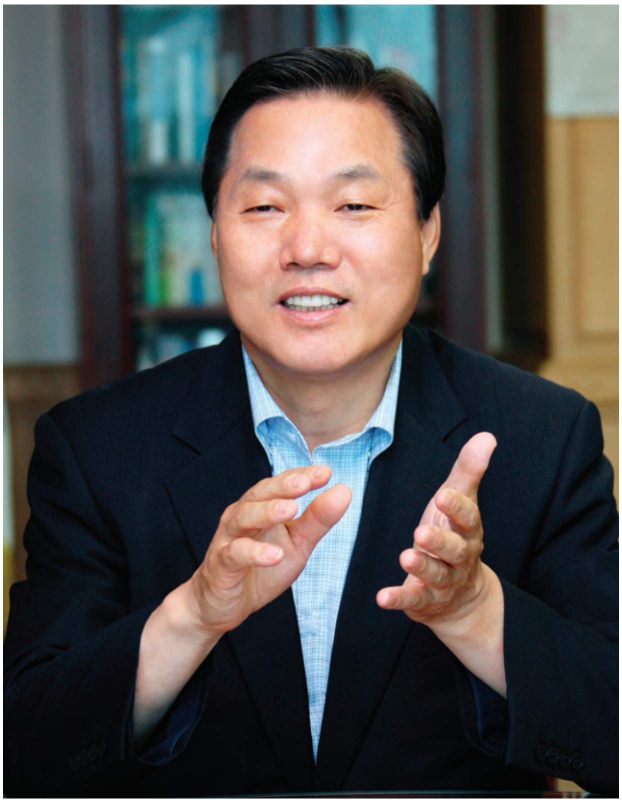
글 · 최승균(매일경제 사회부 기자)

통합창원시 지역특화산업

구분	지역특화산업	발전전략
창원	첨단 연구개발(R&D)단지	• 창원시 동읍 덕산리 일원에 2013년까지 1백만 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완공 • 해양조선·플랜트·산업신소재·녹색산업 등 첨단 R&D산업 클러스트 조성 •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연계한 R&D벨트 구축 • 국제과학영재센터 설립 등 고급인재 육성사업
마산	마산만 워터프런트	• '마산 르네상스'를 목표로 2025년까지 마산만 워터프런트(친수공간) 조성 • 물류항만 시설, 해변 레포츠시설, 야외 공연장 설치
	제2자유무역지역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제2부흥을 목표로 2016년까지 5백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 노후공장 재건축, 고부가 녹색융합기술개발 산업 유치
진해	웅동복합레저지구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에 2014년까지 22만8천4백6제곱미터 규모로 1단계 완료 • 카지노, 특급호텔, 골프장, 외국인병원 등
	명동해양관광단지	• 진해구 명동 일대에 2013년까지 6백62척 접안 가능한 마리나항 조성 사업 1단계 완료 • 요트시설, 리조트, 호텔, 해양레포츠스쿨 조성

박완수 창원시장

"시민 기대심리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박완수 초대 통합창원시장은 통합의 최우선 과제로 창원·마산·진해시 3개 지역의 장점을 특화해 중점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55) 초대 통합창원시장은 지난 7월 1일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함께 취임 후 민생투어를 이어가면서 공무원들에게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끌게 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통합 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편의와 혜택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지침 덕분인지 민원업무 처리 시간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다. 또 통합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시민들의 복지혜택도 10월 1일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지방행정체제 특별법 통과로 예산 부담을 덜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박 시장은 현장투어에서 "시민들의 통합에 따른 기대심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창원시민들은 현재 새로운 5개 구청시대가 열리면서 구청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새롭게 바뀐 주소에 서서히 익숙해지는 등 통합행정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출범 초기 택시할증, 대중교통요금 등 일부 예견된 문제들도 하나씩 풀려가면서 통합 시정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2004년부터 창원시장으로 일하면서 '골고루 잘사는 세계적 명품도시'를 줄곧 강조해왔다. 마산·진해·창원시를 특화 발전시키는 '마산 르네상스' '진해 블루오션' '창원 스마트'는 그의 3대 발전공약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재선 시장으로 선출된 후 시장 직속으로 '균형발전실'을 새롭게 만들어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출범 1백 일이 되면서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탄력을 받고 있다.

마산 워터프런트 사업, 50억원 투입 2013년 준공

"기존 마산과 진해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 창원처럼 발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역 간 화합도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창원시는 지난 8월 시민과 지역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합과 균형발전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합창원시의 비전 중 일부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 미항으로 개발 예정인 마산만 워터프런트 사업의 경우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부지 무상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내년 말 1단계 사업에 착공해 2013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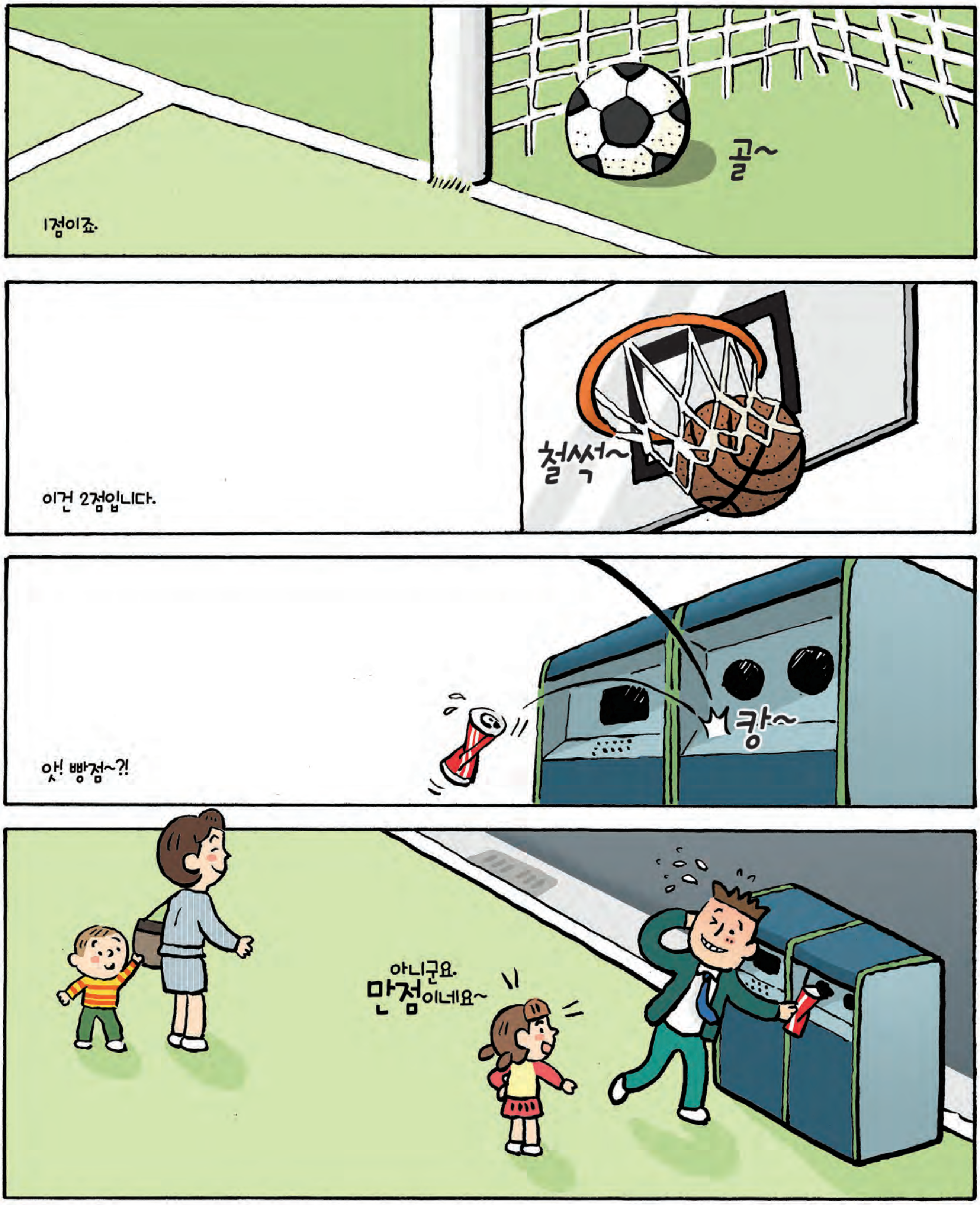
또 마산어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 아케이드 설치 등 장·단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진해지역 숙원인 시운학부(옛 해군시설 운전학부)와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금 세계는 도시브랜드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통합창원시를 더 큰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 통합도시의 성공 모델로 만들고 나아가 세계 일류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

글 · 최승균(매일경제 사회부 기자)

만점 슛!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만점 거리, 만점 양심이 만듭니다.

"행님아, 아이핀 사용할 준비됐나?"

10월 한 달 동안 '2010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인터넷 사이트에 들락거릴 때마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사용하는 두 가지 안전수칙만으로도 개인 보안이 든든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한 달간 이를 홍보하는 '자기정보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행님아! 영어랑 숫자랑 같이 쓰고 자주 바꾸는 거 뭔지 아나?"

"미국말? 미국말 쓰는 여자친구?"

"아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해야 되는 거!"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 말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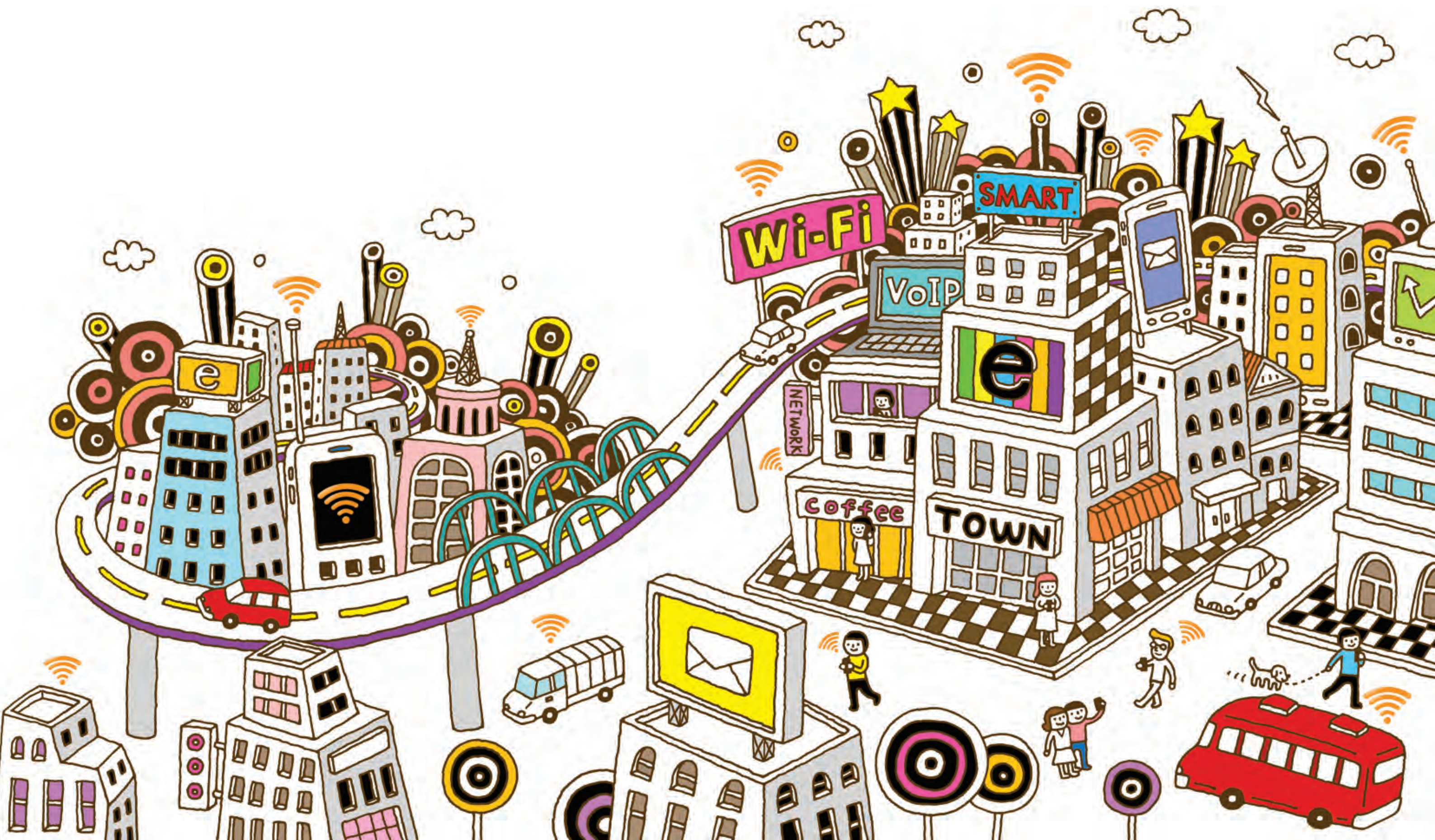
"그래, 맞다! 행님아, 비밀번호 변경~ 자주 하는 거 잊지 마이소!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알았제!"

최근 라디오 광고에서 개그맨 김신영이 코믹한 목소리로 '행님'에게 당부하는 인터넷 안전수칙이다. 인터넷에서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아이핀(i-Pin)을 사용하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인터넷에서 이 수칙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2010 자기정보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비밀번호 자주 바꾸고 개인정보 활용한 번호 피해야

이번 캠페인은 비밀번호 변경과 아이핀 전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UCC, 포스터 등) 공모전을 동시에 진행한다. 참여 업체는 SKT, KT, LG U+ 등 통신 3사의 사이트를 포함해 네이버, 다음, 인터파크 등 주요 웹사이트 23곳이다. 10월 한 달 동안 이들 사이트나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배너를 클릭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한 달 동안 인터넷 비밀번호 변경과 아이핀 설정을 홍보하는 '2010 자기정보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먼저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바꾸기를 권장한다.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입력하고, 세 종류 이상의 문자(예를 들어 알파벳 소문자와 대문자, 숫자)를 섞어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

아이핀(i-Pin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말한다.

아이핀을 만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번 발급받은 아이핀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내에서는 이미 3천6백여 개 웹사이트에서 아이핀을 도입했으며, 9월 말 현재 2백68만여 명이 아이핀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공공아이핀센터 ·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6곳 아이핀 발급

아이핀을 신규 발급하는 기관은 공공아이핀센터,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등 6곳으로, 이들 사이트 중 한 곳에 접속해 신원을 확인받으면 즉석에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핀 발급비는 무료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지원 사무관은 "아이핀은 설령 유출이 돼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10월 한 달 동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전 참가자들에게는 3D TV, 디지털 카메라,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을 준다.

"행님아, 비밀번호 바꾸고 아이핀 사용할 준비됐제?" G

글 · 최은숙 기자

2010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www.saveme2010.kr
공공아이핀센터 www.gpin.go.kr

무선랜 사용할 때 '무선랜 보안'

"3분만 투자하면 보안 설정 끝"

대학생 김선정(20) 씨는 집이나 강의실, 커피숍 등에서 넷북을 즐겨 사용한다. 요즘 김 씨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무선랜(Wi-Fi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무선랜)에 연결하면 신호 강도가 높은 무선랜의 종류가 4, 5개는 뜬다. 근처에서 접속할 수 있는 무선랜이 컴퓨터 시작 화면에 모두 표시되는 것이다. 급할 때는 커피숍에서 무선랜으로 인터넷 뱅킹도 하는데 과연 안전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안 설정이 되지 않은 무선랜 환경에서는 금융거래 등 중요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선랜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보안 설정이 되지 않는 무선랜이 많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편리한 무선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무선랜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무엇보다 무선랜을 사용할 때는 '무선랜 보안'을 꼭 하라는 것이 골자다.

무선랜이란 무선공유기 등 무선 접속장치(AP)를 통해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무선 인터넷 장치다. 만약 보안을 설정하지 않은 채 무선랜을 사용할 경우 해킹에 의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구교영 사무관은 "3분만 투자하면 보안을 설정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보안 설정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무선공유기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컴퓨터의 무선단말기 네트워크 목록 화면을 열면 무선공유기 보안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보안 설정이 돼 있지 않다면 웹 브라우저를 실행→무선공유기 제품별 IP주소 입력 후 무선공유기 설정화면 접속→보안 설정 항목에서 암호를 통한 보안 설정에 체크→비밀번호 항목에 비밀번호 입력의 절차를 거쳐 보안을 설정한다. 이 과정이 까다롭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사이트나 e콜센터로 문의해 보안 설정에 대한 도움말을 들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118 www.118.or.kr



무선랜 안전수칙 7가지

1	무선공유기 사용 시 보안기능 설정하기
2	무선공유기 패스워드 안전하게 관리하기
3	사용하지 않는 무선공유기는 꺼놓기
4	제공자가 불분명한 무선랜 사용하지 않기
5	보안 설정 없는 무선랜으로 중요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6	무선랜에 자동접속기능 사용하지 않기
7	무선공유기 이름, 숨김 기능 설정하기

합성세제 대신 구연산… 80년 쓴 손재봉틀… 생활오수 재활용 장치…

지구 지키는 '녹색달인' 떴다

지구를 지키는 '대한민국 녹색달인'들이 떴다.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생생한 절약 비법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된 '녹색생활 실천 달인대회'의 주인공들이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오혜섭(35) 씨는 주방과 욕실을 청소하거나 채소와 과일을 씻을 때 화학성분이 든 합성세제 대신에 구연산과 소다를 활용한다. 음식의 신맛을 내는 재료인 구연산과 빵과 과자를 구울 때 넣는 베이킹소다는 인체에 무해한 식품첨가물이면서 살균·세정효과가 뛰어나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주부들이 애용한다.

"물 2백 밀리리터에 구연산 1티스푼을 넣어 만든 구연산수를 식탁이나 냉장고에 뿌리고 행주로 닦으면 깨끗해져요. 가스레인지, 싱크대에도 소다수(물 2백 밀리리터에 소다 1티스푼)를 뿌린 다음 구연산수로 다시 닦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구연산은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 대용으로도 쓸 수 있다. 물 2백 밀리리터에 구연산 1티스푼을 타서 빨래할 때 세탁기에 넣으면 옷을 보드랍게 만들어주고 세탁기 안에 끼는 물때도 방지해준다.

오 씨는 네 살, 다섯 살 자녀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세제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피부 자극이 덜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비누와 천연 세제를 찾다 보니 아이에게 좋은 것이 모두에게 좋고 환경에도 좋다는 걸 알게 됐죠."



은정남 씨는 페트병, 옷걸이 철사, 비닐 포장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녹색달인이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은정남(69) 씨는 7년 전 초등학교 교장직에서 은퇴한 후 소일거리로 폐품 재활용을 시작했다. 쉽게 내버리는 페트병, 옷걸이 철사, 비닐 포장지가 그의 손을 거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형 비행기로 다시 태어난다. 올봄에는 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모형비행기 만들기를 가르쳐 공군사관학교 모형비행대회에서 상을 타오게 하기도 했다.

"모형비행대회에 가보면 몇 만원씩 주고 샀다가 한 번 날리고 버리는 재료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그걸 주워다가 손질을 하고 매무새를 잡으면 새것 못지않게 잘 날아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젊은 학부모들한테는 잘 안 통하고 늙은이 잔소리로만 듣는 것 같아 섭섭하죠."

스티커식 인쇄지로 상호 표시… 광고간판 재활용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이면 쓸모 있는 물건을 가져온다는 은 씨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재활용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면서 "쓰던 물건을 버릴 때 열 번 생각하고 버린다"고 말한다.

오 씨와 은 씨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녹색생활 실천 달인대회'의 '녹색실천 수기' 부문 우수상 수상자들이다. 이번 공모전은 자신이 실천한 녹색생활 사례를 담은 '녹색실천 수기', 녹색생활 실천 아이디어를 모은 '녹색 아이디어', 자신이 아끼고 재활용하며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한 글과 사진 등을 제출하는 '녹색소장품'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특히 녹색 아이디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승태(41) 씨의 광고간판 제작 방식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부가 진행 중인 거리 간판 정비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특허를 받은 간판은 겉면의 탈·부착이 가능한 스티커식 인쇄지로 상호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업주가 바뀌더라도 간판을 새로 제작할 필요 없이 표면의 스티커만 교체하면 된



오랫동안 활용한 녹색소장품들 중 강효명 씨 가족의 손재봉틀과 이청일 씨의 전기밥솥이 눈에 띈다. 물품의 사용 기한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녹색생활 습관의 좋은 예다.

다. 현재 국내 전체 간판 5백26만 개 중 1백42만 개의 간판은 재활용되지 않은 채 폐기되고 있다. 따라서 김 씨의 아이디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간판 교체비용 4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스티커 탈·부착이 가능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라서 기존 간판에 비해 전력도 90퍼센트 아끼고 교체 시에도 자원의 98퍼센트를 폐기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이 기술을 도로 표지판에 적용하면 안개가 자욱해서 사물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자동으로 LED 전광판이 켜집니다."

현재 김 씨의 아이디어는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가로 정비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회사원 임광엽(41) 씨는 영양관리사인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떠올린 아이디어로 '눈금이 새겨진 식판'을 제출해 우수상을 받았다.

그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소아과에 데려가거나 영양상담을 할 일이 생기는데 아이가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량을 적어오라고 하면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그램 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눈금을 표기한 그릇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어봤다"고 말했다.

그가 디자인한 단체급식용 식판은 전통 한식인 신선로에서 디자인을 따와 가운데가 볼록하고 둥근 모양에 양쪽 손잡이를 달아 잡기 편하게 만들었다.

발명가 이용국(67) 씨의 생활오수 재활용 장치도 특이한 녹색아이디어다.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인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을 축수통에 받아 변기 내리는 물로 활용하게 만들었다. 세숫물이나 채소, 과일 씻은 물을 따로 모아 축수통에 넣는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오수 재활용 장치를 사용하면 "4인 가족이 연간 35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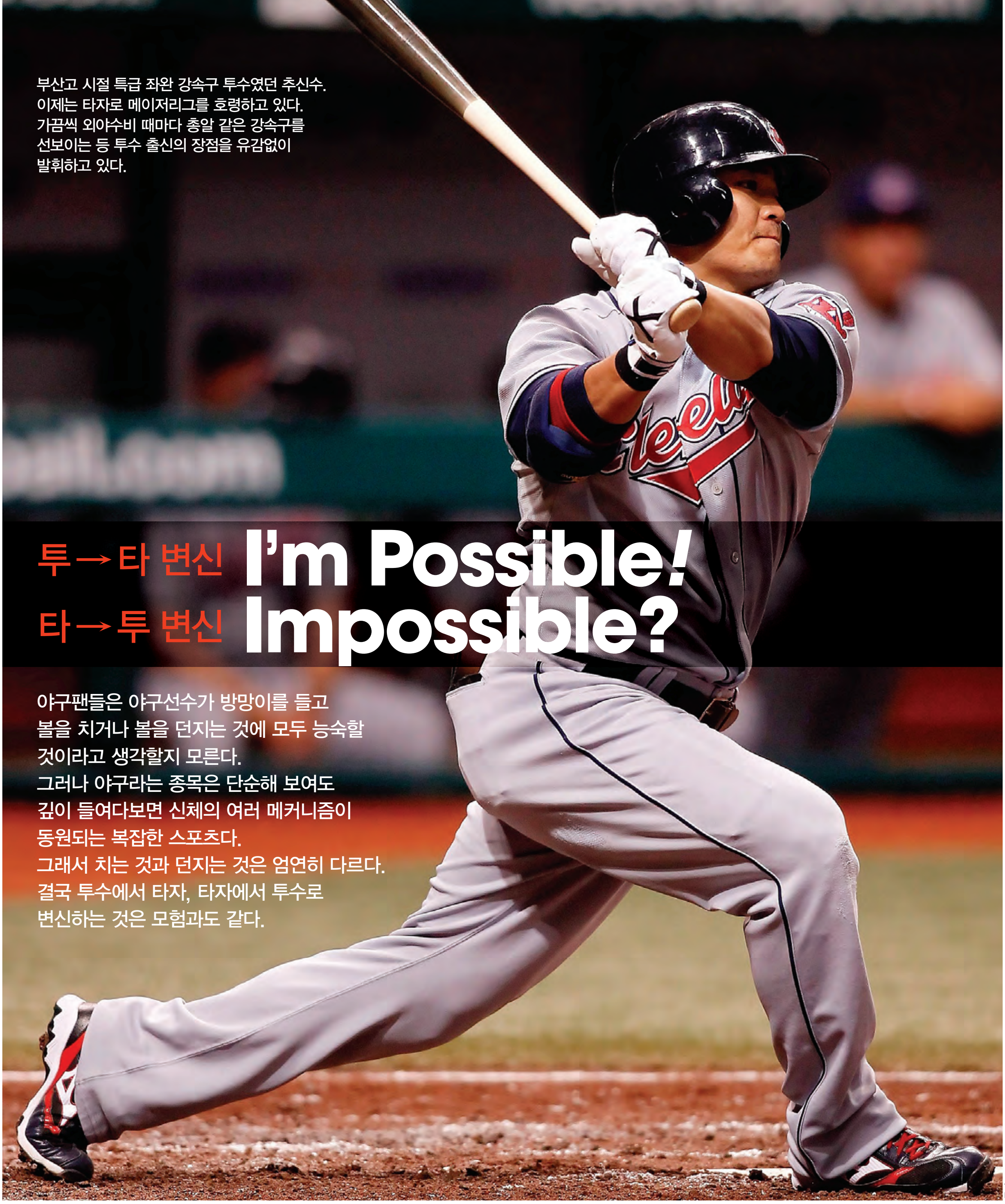
오랫동안 활용해온 손때 묻은 녹색소장품들도 눈에 띈다. 이 부문 최우수상은 강효명(23) 씨 가족이 80년간 사용하고 있는 손재봉틀. 고조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아 시집올 때 혼수로 가져온 구식 재봉틀로 세월의 흔적이 무색할 정도로 단 줄 이기, 트인 곳 꿰매기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청일(68) 씨는 1973년 베트남전 귀국길에 구입한 전기밥솥을 37년 전부터 요구르트 제조기로 개조해 쓰고 있다. 이 밖에도 1940년대에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경대와 실패를 사용하고 있는 정기상(55) 씨,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용하던 1백년 된 책상을 화장대와 컴퓨터 책상으로 활용하는 오화정(36) 씨 등이 녹색소장품 부문 녹색달인으로 선정됐다. G



주부 오혜섭 씨는 합성세제 대신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을 사용하는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글 · 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 02-2100-2815 / 생활 속의 녹색성장 green.go.kr



부산고 시절 특급 좌완 강속구 투수였던 추신수. 이제는 타자로 메이저리그를 호령하고 있다. 가끔씩 외야수비 때마다 총알 같은 강속구를 선보이는 등 투수 출신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동아DB

투→타 변신 I'm Possible! 타→투 변신 Impossible?

야구팬들은 야구선수가 방망이를 들고 볼을 치거나 볼을 던지는 것에 모두 능숙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야구라는 종목은 단순해 보여도 깊이 들여다보면 신체의 여러 메커니즘이 동원되는 복잡한 스포츠다. 그래서 치는 것과 던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결국 투수에서 타자, 타자에서 투수로 변신하는 것은 모험과도 같다.

20년 동안 죽어라 방망이만 돌린 타자라도 시즌 내내 타율 3할을 넘기기 어렵다. 때문에 3할은 억대 연봉 보증수표로 통한다.

그런데 요즘 이른바 '뜬 타자'들을 보면 특징이 있다. 투수에서 전향한 선수들이 적잖다는 것이다. 한국 최고 타자로 올 시즌 도루를 제외한 타격 7관왕을 차지한 이대호(롯데자이언츠)를 비롯해 채태인(삼성라이온즈), 장기영(넥센히어로즈) 등도 투수 출신으로 올시즌 맹타를 휘둘렀다. 국민타자 격인 추신수(미국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이승엽(일본 지바롯데 마린스) 역시 중도에 '전공'을 바꾼 경우다.

이대호는 올해 연속경기 홈런 부문 세계신기록(9경기)을 세웠고, 추신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도루)-20(홈런) 기록을 세우며 아메리칸리그의 대표적인 호타준족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승엽은 전성기가 다소 지났지만 국내 무대에서 아시아 홈런신기록(56개)을 작성한 뒤 일본에서도 아시아 최고의 거포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대호·추신수·이승엽 "투수에서 타격 달인으로"

경남고 시절 촉망받는 투수였던 이대호는 2001년 롯데에 입단한 뒤 어깨 부상으로 타자로 전향했다. 이승엽은 경북고



이대호는 경남고 시절 촉망받는 투수였다.

시절 청룡기 고교대회에서 우수 투수상을 받을 정도로 투수로 유망했지만 팔꿈치 부상 재활 때 방망이를 잡게 됐다. 부산고 에이스로 전국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추신수의 경우 시애틀 매리너스 입단 때 타자 전향을 제의받고 보직을 바꿨다.

20년 한 우물을 파도 득도하기 힘든 게 타격 기술인데, 중간에 노선을 수정한 선수들이 성공한 비결은 뭘까.

야구는 크게 투타로 나뉘지만 기본 메커니즘을 공유한다. 왕년의 국가대표였던 박영길 회장도 "투수와 타자는 중심이동과 임팩트 때의 메커니즘이 같다"고 했다. 다른 건 한 가지. 그는 "투수는 임팩트 순간에 허리를 숙여 가슴을 허벅지까지 끌고 가지만 타자는 허리를 세워 공을 치는 것이 다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투수와 타자, 중심이동·임팩트 때 메커니즘 같다"

이와 같이 투타 기본 메커니즘을 공유하는 데다 투수 출신만의 장점도 있다. 투수들은 타자보다 허리를 잘 쓴다. 하체를 동반한 중심이동에 능하다. 또 투수는 신경과 근육의 공조가 타자보다 좋다. 그래서 타격에 눈을 뜨면 일취월장한다.

우수한 인재가 대부분 투수를 원하는 것도 한 이유다. 프로에서 투수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추어에서 '야구 좀 한다'는 선수들은 대부분 투수를 한다. 고교 야구팀 에이스는 대부분 3~5번 중심타선에 포진된다. 던지는 감각이 좋으면 치는 감각도 좋은 것이다. 또 투수 경험이 있어 상대 투수의 노림수를 잘 파악한다.

타자는 매일 경기에 나선다. 경기당 네다섯 번 타석에 선다. 경험을 누적하기 쉽고 투수보다 성장이 빠르다. 그래서 2, 3년 착실히 출장하면 상당한 노하우를 갖는다. 그래서 타자로 전향한 뒤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최다 홈런기록(8백68개)을 보유하고 있는 왕정치도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해 성공한 경우다.

그렇다면 타자에서 투수로 전향해도 성공할까. 이론상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권준헌(한화이글스), 황두성(넥센히어로즈)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승엽, 이대호, 추신수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크게 성공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부상이 가장 큰 문제다. 타자에서 투수로 전향한 선수들의 공통점은 어깨가 강해 전향 제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강한 어깨만 믿고 전향을 결심했지만 이내 부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투수와 타자의 어깨 근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투수는 타자에 비해 어깨 근육이 상당히 강하다. 그 근력 강화는 웨이트트레이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을 던지면서 조금씩 강화된다.

그래서 전향자들은 근육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통과의례' 식으로 부상을 겪는다. 공 한 개를 던질 때, 스윙을 한 번 할 때는 몸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다. 이가 상해 마우스피스를 끼어야 할 정도다. 경기당 공을 한두 개만 던진다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수십 개의 공을 던지니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강한 어깨를 앞세워 1999년(LG트윈스) 투수로 전향한 심재학(현 넥센히어로즈 코치)은 3승3패에 그친 채 타자로 되돌아갔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투수 근육은 다르다고 들었는데, 막상 던져보니 어깨가 많이 아팠다. 진통제 예닐곱 알을 먹고 마운드에 오른 게 예사였다"면서 "근력운동을 했지만 투수 근육은 근력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져야 강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당장 아프니 고통스럽기만 했다"고 털어놨다. 한화이글스 권준헌도 "초반에는 팔을 펴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다"고 했다.

중심이동에 필요한 하체나 허리 근력도 문제가 된다. 심재학은 "어깨가 아프기 전에는 허리 때문에 애를 먹었다. 투수 전향 뒤 3주 후에는 허리 통증으로 앓아누웠다"고 했다. 그러니 공 20개 정도는 강하게 던질 수 있어도, 그 이상 넘어가면 공의 위력이 현저히 떨어져 난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심재학은 "어쩔 수 없이 경기당 20개 정도를 던지는 불펜투수로 나섰지만, 뭉친 어깨 근육이 쉽게 풀리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했다.

힘 있는 직구만 믿고 전향했더라도 또 다른 벽을 실감한다. 투수는 변화구가 있어야 산다. 그런데 통상 변화구 한 개를 장착하는 데 2, 3년이 걸린다. 요즘엔 좌우로 휘는 슬라이더, 체인지업에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커브, 포크볼 정도는 기본이다. 이 네 가지를 갖추는 데 산술적으로 10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 근력도 안 갖춰진 데다 변화구까지 추가해야 하니 웬만해서는 투수로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은 것이다. **G** 글 · 윤승옥(스포츠서울 기자)



삼성의 거포 채태인이 과거 투수였다는 사실을 아는 팬은 그리 많지 않다.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제8회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

성공적 경영, 혁신적 데이터 관리로부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그렇다면 각각의 DB들을 상호 연계하고 조합해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경영 기술을 얻는 활용전략 수립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10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에서는 DB의 체계적인 활용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8회째로 그간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를 초빙해 다양한 관리전략을 소개해 정보기술(IT)과 비즈니스 분야의 대규모 핵심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질적 DB 활용 성공 사례와 해법, DB의 가치 제고방안과 관련 기술 등이 자세히 소개된다.

DB 활용 성공 사례 및 가치 제고방안 등 소개

'신성장동력의 핵심 인프라, 데이터베이스의 미래를 생각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10퍼센트가량 늘어난 약 1천2백명의 정부 및 학계인사, 산업계 전문가, 경영인 등이 참석한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는 오전 컨퍼런스에서는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인포메티카(Informatica)사의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마케팅 책임자인 레비 쉔커, 메인메모리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분야 1위인 알티베이스의 최용호 대표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마스터데이터 관리 및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환경에서의 동적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김권식 팀장과 데이터 컨설팅 분야 회사인 엔코아컨설팅의 명재호 상무가 올해 첫 시행되는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5개 분과로 나눠 35개의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공공기관으로는 4년 연속 전자정부 세계 1위를 거머쥔 서울특별시와 보증기관 최초로 데이터 품질관리 인증(DQMC)을 획득한 대한주택보증이 공공 DB 개방정책과 이슈, 공공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성공전략을 내놓는다.

이 밖에도 한국IBM, SAS코리아, 한국사이베이스, 엠바카데로, 네티자코리아 등 DB 관련 회사들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DB 분석 플랫폼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세부전략을 발표한다.

한응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장은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는 IT 관계자뿐 아니라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혁신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참가하려면 10월 15일까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G 글 · 유재영 기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02-3708-5415 www.kdb.or.kr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에선 신성장동력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활용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된다. 사진은 2009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 주제 발표 장면.

행복의 발견 '쉼표'

글과 그림 · 최영순



행복은 고생 끝에 얻는 것이 아니다. 행복을 발견하는 첫걸음은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참다운 '쉼표'를 선물하는 것이다.
– <쉼표, 중년에게 말을 걸다> 중에서(서정희 지음)

몸짓 열넷, 생명을 알리다

무용극 〈더 백〉

죽음을 선택할 만큼 괴로운 사연은 남에게 쉽사리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때로는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이유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음에도 우리는 자살을 너무 쉽게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댄스 씨어터 포피(4P)의 이진우 대표는 지난해 핫이슈였던 자살을 주제로 누구나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더 백(The Back)〉 공연을 기획했다. 이 작품은 삶의 소중함과 자신감을 몸짓으로 전달해 그 '소통'의 파급효과로 백 번의 자살방지 문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안무가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이번 공연에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켕(1858~1917)의 자살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삼아 사회의 획일화된 가치관을 부정한 끝에 죽음을 선택하는 인간의 내면을 그려낸다. 이를 위해 그는 자살이라는 주제를 더 진지하게 다루고자 자살 미수자들을 어렵게 찾아내어 수차례 인터뷰하고 그들을 걱정하던 가족과 주변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아내, 그녀를 바라보는 남편, 측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여인, 지하철 노점상, 연예인이 꿈인 시골처녀 등으로 분한 14명의 무용수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된다.



이 대표는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사람은 그 고통과 삶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안다"며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현재의 소중한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10월 16일 오후 3시, 7시, 17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학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464-4953 www.ntok.go.kr

● 발레 〈시 읽는 시간〉

장선희발레단의 2010 가을 기획공연. 앨프리드 D 수자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김춘수의 '꽃' 등 명작 시들이 아름다운 몸짓, 발레와 만난다.

일시 10월 15일 오후 8시, 16일 오후 4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1~3급은 동반 1인까지) **문의** 02-3408-3280 www.sac.or.kr

●● 전시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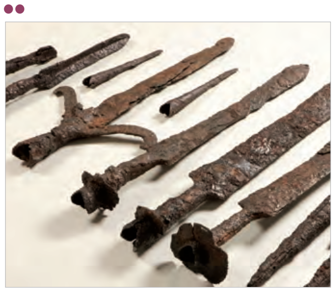
황남대총 출토품 중에서 신라 황금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거나 문화적 계통을 밝혀줄 1천2백여 점을 엄선해 전시한다.

일시 10월 31일까지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일요일 오전 9시~오후 7시(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000 www.museum.go.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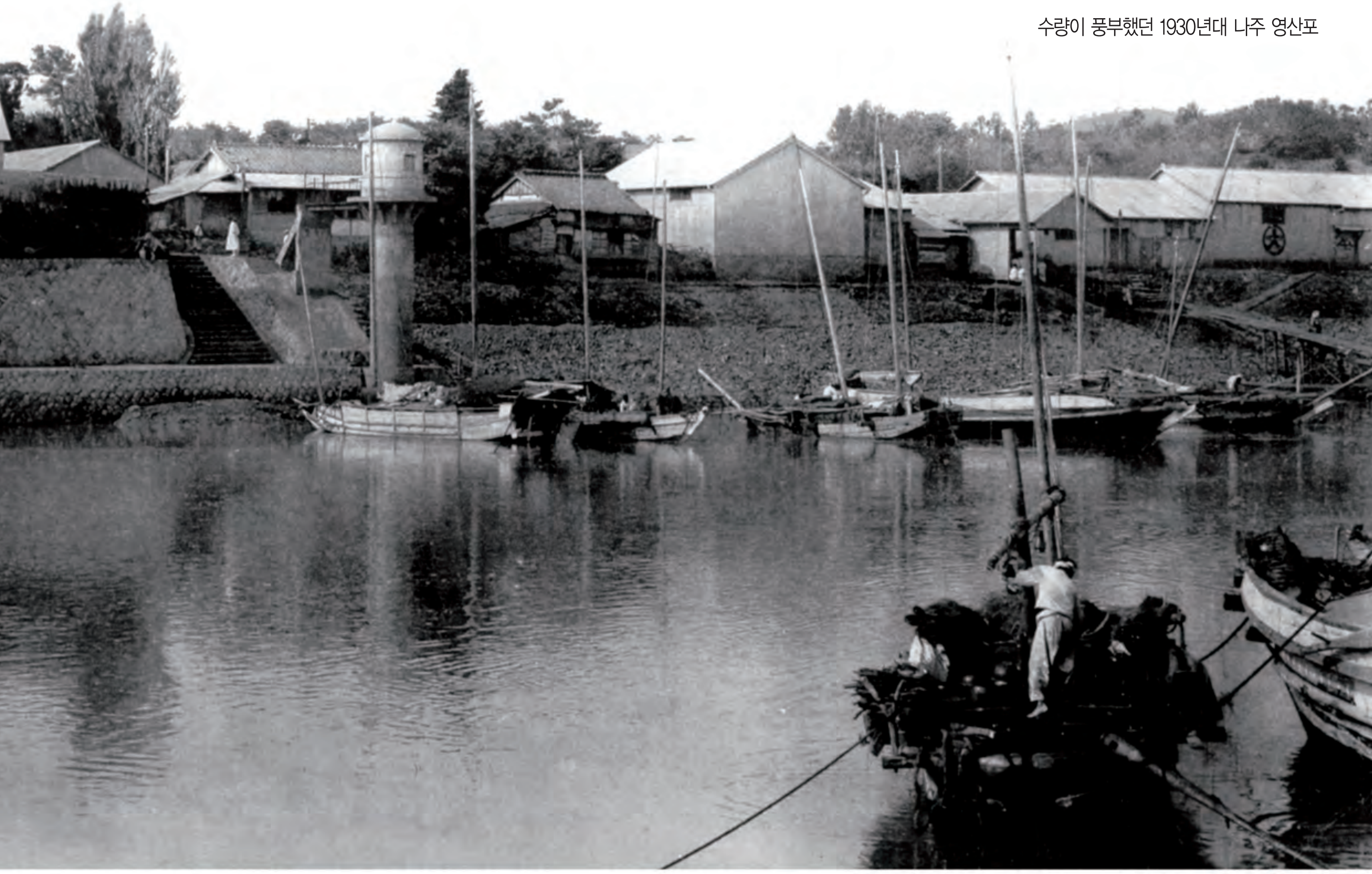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태권도장에서도
축구교실에서도
수영장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의 밝은 미소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대한민국 희망쿠폰 스포츠바우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스포츠바우처제도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10년 한해에만 60억원의 예산으로 14,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며
운동용품 지급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스포츠바우처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KSPO 케이스포 | 국민체육진흥공단


수량이 풍부했던 1930년대 나주 영산포

4대강살리기는 강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 금강세종시 구간

강에 퇴적토가 쌓이지 않았던 1930년대만 해도
내륙 깊숙이 배가 왕래할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습니다
4대강살리기는 퇴적토를 청소하여 우리 강을 치료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여 생명과 희망이 돌아오게 하는
우리강 제 모습 찾기입니다

강을 치료합니다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걷어내어
홍수와 가뭄으로 신음하던
강을 치료하게 됩니다

생명과 희망을 돌아오게 합니다
넉넉해진 강물로 인해 조류와 물고기등
주변 생태계가 풍요로워집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주변환경과 자연을 생각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공법을
사용합니다

4대강살리기